메트로 2014년 3월 6일 목요일 www.metroseoul.co.kr

월드컵 응원 출정식 서울종합예술학교 학생들이 5일 오후 서울 태평로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4 브라질 월드컵 D-100 붉은악마 응원 출정식에 앞서 응원전에 사용되는 태극기 유인물을 들고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응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입사하려면 인문학 공부하라"

대기업, 脫스펙 역사·교양 중시경향 뚜렷
오디션·글로벌 탐방 등 이색 방식 도입도

올 상반기 대기업에 입사하려면 역사 등 인문학 공부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대기업에서 시작한 '탈스펙' 바람이 전체로 확산되면서 영어나 학점, 자격증보다는 역사 등 인문 교양을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취업 스펙 쌓기에만 몰입하는 지원자들 배제하기 위해 오디션, 글로벌 탐방 등 이색 채용 전형을 도입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구직자는 원하는 기업을 선택해 맞춤형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했다.

◆삼성 현대차 등 공채 스타트=상반기 공채를 가장 먼저 시작한 SK그룹에서는 지난 3일부터 SK텔레콤을 비롯해 SK하이닉스, SK네트웍스, SK케미칼, SKC 등 18개 계열사가 원서를 받고 있다. LG그룹의 경우 5일 LG화학을 시작으로 LG하우시스, LG전자, LG유플러스 등이 차례로 원서를 받을 예정이다.

삼성그룹은 오는 24~28일 지원서를 접수하고 다음달 13일 삼성직무적성검사(SSAT)를 치른다. 현대차그룹은 이달 중순부터, 포스코는 다음달 초부터 서류 접수에 들어간다.

대기업들의 올 상반기 채용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삼성그룹은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 규모를 4000~5000명 수준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난 2300~2400명의 대졸 신입사원을 상반기에 선발할 것으로 보인다. LG그룹은 1500~2000명, SK그룹은 인턴과 신입사원을 합쳐 500명을 올 상반기에 선발한다.

◆스펙만 원다간 큰코다친다=스펙보다는 구직자 개인의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채용 제남을 다변화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현대자그룹은 지난해 하반기 공채부터 학점, 영어 성적, 전공 등에 대한 제한 요건을 없애는 대신 역사 에세이를 작성하는 평가를 도입했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인가 를 30분 동안 1000자 이내로 서술하는 방식이다.

기아차도 채용 인력의 일정 비율을 스펙과 무관하게 자기소개서만으로 선발하는 '커리어투어' 프로그램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부터 대학총장 추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새로운 채용제도를 도입하려다 반발에 부닥쳐 백지화한 삼성그룹은 필기시험인 SSAT에 역사를 비롯한 인문학적 지식에 관한 문항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지원자가 종합적 논리적 사고력과 보편적인 인문 교양을 갖췄는지를 비중 있게 보기 위해서다.

SK그룹은 창업 경험, 오지에서의 자원봉사, 오지 여행을 통한 관광 상품 개발 등 실제 직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인적 경험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바이킹 챌린지' 전형을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강하수 잡코리아 대표는 "갈수록 힘난해지고 있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기업들이 역사, 문화·철학 등 다방면의 정보를 융합해 사고할 줄 아는 창의적인 인재를 찾고 있다"며 "구직자들은 남들이 하지 않은 경험이나 도전을 통해 얻은 값진 교훈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 등을 미리 정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미국영기자 kmsee@metroseoul.co.kr

北방사포에 中민항기 맞을뻔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300㎜ 신형 방사포가 인근 지역을 비행 중이던 중국 민항기의 궤적을 스쳐가는 아찔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5일 "항행 경보를 공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이 전날 오후 4시17분에 1차로 방사포를 발사한 직후인 4시24분에 일본 나리타에서 중국 선양으로 향하는 중국 민항기(남방항공 소속 CZ628)가 방사포탄이 비행 궤적을 통과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러한 북한의 도발 행위는 국제적 항행 질서 위반이자 민간인 안전에 심대한 위협"이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고 민간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는 비북적인 도발을 중단하고 국제 규범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민항기는 에어버스321 기종으로 승객과 승무원 등 220여 명이 탑승해 있었고, 북한이 북동 방향으로 발사한 방사포가 지나간 상공을 6분 정도 차이로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주한중국대사관 무관을 통해 이런 사실을 중국 측에 통보했다.

/이도운기자 [illegible]

더 많은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 www.metroseoul.co.kr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장학재단 사회공헌대상 수상

한국장학재단은 5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4 행복더함 사회공헌대상'에서 교육장학공헌 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회공헌대상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한 기관 등을 선정해 매년 수상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지원제도를 정착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부터 3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주요 장학 활동으로 지난해 3조원 규모로 지원했던 국가지원 장학금을 올해 3조7000억원 규모로 크게 늘렸으며,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늘어난 점과 함께 다양한 제도 개선도 이뤄냈다.

이번 사회공헌대상은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언론인협회가 주최하고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가 후원했다.

동양사태 피해 시위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이 5일 오후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동양그룹과 금융당국의 배상 및 대책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방통대, 기능성 쌀 2종 업무협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5일 오전 류수노 농학과 교수가 개발한 기능성 쌀 두 가지 품종에 대해 기술이전 계약 및 업무협약을 ㈜이룸, ㈜새싹과 체결했다.

두 품종은 슈퍼자미와 슈퍼홍미다. 슈퍼자미는 기능성 물질로 알려진 C3G 성분이 지금까지 육성된 쌀보다 10배 이상 높아 항산화, 항염·항암·항아토피·항당뇨 등의 심혈관계 질병 예방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 또한 유종 출원 중인 슈퍼홍미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을 활성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이번 협약은 올해부터 향후 3년간 상호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식생활 개선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관계 기관의 발전과 농촌 경제의 경쟁력 강화에도 목적을 두고 있다.

기술 도입 업체인 ㈜이룸과 ㈜새싹은 새로운 품종을 통한 수익이 ▲올해 3600만원 ▲2015년 3억여원 ▲2016년에는 20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부대학 수시 전형 바뀐다

2015학년 교과·비교과 반영비율 제각각

일부 대학교가 201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새로운 전형을 개설했다.

5일 교육업체 진학사가 분석한 '2015학년도 신설 수시모집 전형' 자료에 따르면 연세대는 학생부교과전형을 신설했다. 1단계에서 교과 성적으로 3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 교과 70%와 비교과 30%를 반영해 수험생을 최종 선발하기로 했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인문계열 4개 영역 중 2개 영역 등급 합 4 이내, 자연계열 등급 합 5 이내다. 다만 자연계열의 경우 수학 또는 과탐 중 1개 이상 2등급은 받아야 한다.

고려대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융합형인재전형을 신설했다. 1단계에서 서류(교과 80%+기타 20%)로 정원의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와 면접 30%를 적용한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인문계와 자연계 모두 4개 영역 중 2개 영역이 평균 2등급 이어야 하고, 의과대학은 국어 A형, 수학 B형, 영어 합계 4등급을 요구한다.

서강대는 교과 75%와 비교과 서류 25%를 반영해 학생을 선발하는 학생부 교과전형을 만들었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인문계열 4개 영역 중 3개 각 2등급, 자연계열 2개 각 2등급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한양대는 1·2단계에서 학생부 성적 100%와 면접 100%로 선발하는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 성적을 100%로 반영하는 학생부종합전형 등 2개 전형을 신설했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반영하지 않는다.

아울러 한국외대에서는 교과 성적 100%로 뽑는 학생부교과전형이 새롭게 실시된다.

/윤다혜기자 yoh@metroseoul.co.kr

간첩사건 국정원직원 조사

검찰은 5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 진상조사와 관련해 국정원 대공수사팀 요원 여러 명을 최근 조사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 실무팀을 지휘하는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은 이날 "국정원 대공수사팀 요원을 조사하는 등 실질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진상조사나 수사 모두 형사소송법상 규정에 따른 절차여서 큰 차이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에는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증거조작 의혹이 제기된 문건 입수에 관여한 국가정보원 직원 및 유우성씨 수사 및 재판에 관여한 검사 2명을 고발했다.

윤 부장은 조사 과정에서 유우성씨를 불러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현 단계에서 한다 안 한다고 결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진행 상황에 따라 그럴 필요성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에 대한 형사 사법공조 요청과 관련해 "어제 오후 요청서와 관련 문서를 외교부에 접수했다"고 말했다. /윤다혜기자

영동 다시 눈 경칩을 하루 앞두고 폭설이 쌓아진 5일 강원 강릉의 한 대학 캠퍼스에서 학생들이 교정을 걷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영동에 내린 눈은 밤에 대부분 그치고 경칩인 6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꽃샘추위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다. /연합뉴스

김승연회장 봉사연기 신청

김승연 한화 회장이 최근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사회봉사명령 연기를 신청했다. 김 회장은 대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석방과 함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은 상태다.

한화 측은 구속 기간에 당뇨, 만성 폐질환, 우울증 등을 앓아온 김 회장은 "현재 심각한 건강 이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사회봉사 명령을 연기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미국화가 오키프 사망

꽃과 사막의 화가 조지아 오키프가 1986년 3월 6일 9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남성화가 위주의 20세기 초 미국 미술계에서 꽃그림을 그리던 시골의 미술교사 오키프는 뉴욕의 저명한 사진가이자 화상인 앨프레드 스티글리츠에게 발탁돼 유명해지기 시작했다. 스티글리츠와 연인관계로 발전하면서 오키프는 추문과 명성을 함께 얻었으나 뉴멕시코 ... 의 자연을 ... 으로 ... 담아내 세계적인 화가의 자리에 올랐고 ... 자연의 삶을 살면서 수많은 작품을 남겼다.

제과·제빵

■(국비) 부산시 맞춤훈련생모집
· 모집기간 : 2014. 3.16 까지
· 훈련기간 : 2014. 3.17 ~ 7.14 까지 (4개월 6시간)
· 훈련비용 : 전체훈련비용의 10% 본인부담 (175,000원)
(취약계층 본인부담없음)
월 80%이상 출석시 매월 훈련수당지급

노동부 지정 수영제과제빵직업전문학교 (051)753-4949
www.sybekery.co.kr

외국기업에 컨설팅…우려 목소리

서울시 장밋빛 맥킨지 보고서 "내부 정보 공개 아니냐"

서울시가 5일 맥킨지와 삼일회계법인이 권고한 경영 혁신을 통해 2020년까지 5대 산하 기관에 대한 2조3639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다국적 기업인 맥킨지에 서울시 내부 정보를 고스란히 공개한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 외국의 사례를 접목한 것은 국내 현실이나 공기업 문화와 동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민간기업 컨소시엄에 컨설팅을 의뢰했고, 이날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SH공사·서울시설공단·서울연구원 등 5개 기관은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경영 혁신 보고회를 열었다.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5~8호선을 맡는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하철 역사 상가 등 활용에 구두 수선·세탁·티켓 판매처 등 수요가 많은 사업을 개발하는 한편 역세권 부동산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사가 분리돼 생기는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공사 발주·물품 구매·신규 철도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공연터도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두 공사는 컨소시엄이 권고한 16개 과제를 실행하면 7년 후 1조8500억원의 재정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SH공사는 매입임대주택 현장조사 강화, 입주민의 임대주택 관리 참여, 설계 기준 내 대체재와 신공법 적용 등으로 지난해 말 기준 16조6000억원인 채무를 2020년엔 4조원 이하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설공단은 18개 수탁 사업 중 글로벌센터, 공영주차장, 공영차고지, 혼잡통행료 징수, 교통정보센터 사업을 독립시켜 11개로 줄이기로 했다. 또 월드컵경기장과 지하상가, 어린이대공원, 승화원, 추모공원은 마케팅 전문가를 채용해 운영 효율화를 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모 교수는 "요즘 대기업도 다국적 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 때문에 기업 정보를 노출하는 컨설팅을 자제하고 있다"며 "대부분 자체 컨설팅을 통해 구조조정과 경영 혁신을 추구한다. 하물며 서울시가 세계 모든 국가와 기업들을 상대하는 맥킨지에 속살을 모두 내보인 것이 걱정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검증위원으로 참여한 변모 교수 역시 "지하철 공사의 비효율적인 운영과 SH공사의 막대한 재무 문제를 거론한 것은 과거에도 이야기됐던 부분"이라며 "다만 매년 40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는 지하철 양 공사가 운임 이외의 수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은 옳다. 특정 역 근처에 소재한 기관들에 돈을 받고 해당 역 표지판에 역사명을 표기해주는 사업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은 좋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반적으로 선진국의 사례를 접목한 내용들이 우리 공기업 문화와 동떨어진 부분이 많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유선준기자 rriv@metroseoul.co.kr

답답한 박스권 코스피 지수

기자 수첩
김현정
<경제산업부 기자>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 보고서에서 아시아 주식시장을 '와호장룡'이라고 표현했다. 웅크린 호랑이와 숨은 용이란 뜻으로 강호의 숨은 고수들을 의미하는 중국 속담이다. IMF는 아시아 증시의 성장을 향한 잠재력이 엄청나다고 기대했다.

그러나 수년째 박스권에 갇혀있는 코스피를 보면 호랑이와 용이 언제쯤 깨어날지 의문스럽기만 하다. 게다가 국내 주식시장의 자본 조달 기능은 더 하락하고 있다.

국제신평사의 국내 기업 신용등급 강등에 싱가포르 등 해외 증시의 문을 두드리는 회사가 늘고, 한국 증시의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위축된 지도 한참됐다.

코스피지수가 1850~2050선의 박스권을 뚫고 오를 만한 새로운 동력도 찾기 어렵다.

다른 아시아 증시도 마찬가지다. 기업 실적 등 자국의 펀더멘털보다 각종 대외 정치·경제적 요소에 휘둘린다.

IMF 보고서는 이런 상황에서 흥미로운 시각을 소개한다. 아시아 증시가 적절한 규제와 기업 재무구조 개선, 증시 관련 상품의 인프라 구축을 이루면 글로벌 자본시장에 통합되고도 양적·질적 측면에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했다.

한국의 경우 간과되는 소액주주 권리의 보호를 통해 주식시장 자금 조달 기능 회복을 이루는 선순환 고리를 대입해볼 수 있다.

한국 증시에 필요한 개선안이 무엇인지 고민해볼 시점이다.

"적십자실무접촉 12일 갖자"

정부가 5일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포함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협의할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을 12일 갖자고 북한에 공식 제의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11시15분께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 전화통지문을 북측에 보냈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우리 측 제안은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하루라도 빨리 이산의 한을 풀 수 있도록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자는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북측이 이산가족의 아픔과 고통을 고려해 우리 측의 제의에 조속히 호응해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이 진행 중인 가운데 북한이 우리의 적십자 실무 접촉 제의에 즉각 호응해올지는 불투명하다. /채신운기자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100여기

북한이 최근 정밀도가 향상된 KN-02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100여기 보유한 것으로 평가됐다.

5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KN-02 미사일에 대한 위협평가' 등을 통해 북한이 KN-02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170㎞까지로 늘렸으며 미사일도 100기 보유한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GPS 유도 방식으로 KN-02 미사일의 목표물 명중 오차를 50m 안팎으로 줄이는 등 정밀도를 높인 것으로 평가됐다.

KN-02 미사일은 시격통제레이더를 가동하지 않고 발사되기 때문에 한·미 연합감시자산으로 사전에 탐지가 쉽지 않아 더욱 위협이 되고 있다. /김민호기자

통합신당 수뇌부 회동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 등 양측 지도부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첫 연석회의에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통합신당 접전 예상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이 '제3지대' 신당 창당 합의를 발표한 이후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과 야권 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지난 3일 전국 성인 남녀 9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통합 신당의 지지율은 35.9%, 새누리당은 40.3%로 조사됐다. 지지 정당 없음은 19.9%였다.

경향신문이 3~4일 전국 성인 601명을 대상으로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새누리당 39.3%, 통합 신당 29.8%를 보였다.

통합 신당에 대한 뚜렷한 지지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서울·경기 등에서는 새누리당 후보들이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 여론조사에서 최대 관심 지역인 서울시장은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40.6%로 통합 신당 박원순 시장(36.9%)을 오차 범위(±4.4%포인트) 내인 3.7%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지사 대결에서도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35.1%로 통합 신당 김상곤 경기도교육감(22.8%)보다 12.3%포인트 앞섰다.

/조현정기자 jhj@

뉴스 & 뉴스

남경필·유정복 "출마하겠습니다"

●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6·4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남 의원은 5일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날 새누리당 인천시장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하고 장관직을 사퇴했다.

연금법 논의 보건복지위 소집

● 여야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소집해 기초연금 법안 등을 논의하기로 5일 합의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초연금법안, 장애인연금법안, 기초생활보장법안 등 조속히 결론 내기 위해 복지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신발 명품화’ 올해도 속도낸다

시, 에이로·온누리산업 등 5개 특화기업 선정

세계적인 신발 명품 브랜드 육성을 위한 '우리 브랜드 신발 명품화 사업'이 올해 사업의 첫 단추를 꿰었다.

부산시는 부산 신발 우리 브랜드 명품화 도전을 위해 지난달 16개 기업이 명품화 사업 신청을 했으며 치열한 경쟁을 거쳐 5개 특화기업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선정된 5개사는 (주)에이로, (주)자이로, 에이지에스인터내셔널, 온누리산업, 국제글로벌(주)이다. 연례 선정 과정에서 예년에 비해 높은 경쟁률(3.2대 1)을 보이며 신발 산업의 개발 열기와 우리 브랜드의 명품화에 대한 높은 열망을 나타냈다.

명품화 사업은 지역 신발기업에 대한 첨단 소재, 인체공학적 설계, 디자인 등 개발 지원으로 부산 브랜드 신발을 세계적 고부가가치 명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사업비 3억9600만원 규모로 추진된다.

선정 기업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주)에이로는 '발바닥 지압 기능을 가진 초경량 기능성 깨강화 개발' ▲(주)자이로는 소치 동계올림픽, 이후 스피드스케이팅의 주요 마나아층 청성 넓이 광장 동계올림픽까지 연결된 수요를 겨냥한 '족부 밀착형 스피드용 아이스 스케이트 부츠 개발' ▲에이지에스인터내셔널은 패셔너블한 고객의 니즈제공과 친환경 공법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친환경공법의 다기능솔 교체구조 신발 개발' ▲온누리산업은 반사구 요법을 이용한 오랜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파이톤(EVA)(골포)을 이용한 이중 듣기 지압 슬리퍼 개발' ▲국제글로벌(주)는 국내 외 낚시 레저 인구 증가에 따른 고급 낚시화 시장을 주도할 '렉슈마(REXUMA) 브랜드 낚시화 개발'을 각각 진행하게 된다.

이들 기업은 성공적인 개발 완료로 향후 3년간 약 410억원(내수 142억원, 수출 268억원)의 매출효과를 기대하는 등 성공적인 명품 브랜드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개발 진행은 부산시의 지원을 받아 선정된 5개사와 부산경제진흥원 신발산업진흥센터, 한국신발피혁연구원이 협력해 맞춤형 연구 개발 및 기술 지원으로 성공적인 과제 수행을 해나갈 계획이다.

시는 중간평가(7월), 최종평가(12월) 등을 거쳐 기술 개발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개발 제품의 홍보 강화에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가능성 있는 지역 기업이 세계적인 명품 신발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명품 신발 개발의 산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하균기자 [illegible]

착한가격 업소 카페 개설

부산 수영구는 오는 10일 착한가격업소 인터넷 카페를 개설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카페명은 '부산수영구 착한가격업소'로 카페 주소(http://cafe.naver.com/suyeonachakhaa)로 접속해 다양한 착한가격업소의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이용자들이 우수업소 추천 및 이용 후기 등을 자유롭게 게재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동래구 관광시책 평가 최우수

부산 동래구는 지난 2월 부산시가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관광사업 개발, 관광 마케팅 등 모두 4개 분야 22개 항목의 관광진흥시책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구가 평가받은 관광 시책은 '범어사와 함께하는 문화유적지 탐방', '명륜1번가 외국어 가격표시 시범거리 운영', '축제 홍보물 외국어 표기' 등 3개 분야다.

대중교통 분실물센터 운영

울산시는 버스나 택시에서 잃어버린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대중교통 분실물 인터넷 통합센터(www.ulsan.go.kr/LOST)'를 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6500만원을 들여 지난달 28일 통합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5일까지 시범 운영을 했다.

통합센터는 '습득물 찾아가세요', '분실물 찾아주세요', '이용안내' 등 3개 메뉴로 구성됐다.

통합센터를 통해 시민이 분실·습득 일자, 종류, 보관 장소, 사진 등을 입력하거나 조회할 수 있다.

또 시민이 통합센터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시내버스 노선과 시내버스 및 택시업체 현황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분실물을 찾을 때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습득한 운송업체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7200만원짜리 라이터 등록 5일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4층 에비뉴엘관의 듀퐁 매장에서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전 세계 20개만 한정 생산된 각각 7200만원짜리 라이터 외 볼투펜을 전시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제공

시민공원 주변 노후건물 환경정비

개장을 앞둔 부산시민공원과 송상현광장 주변 슬럼화된 노후 건물에 대한 환경 정비가 이뤄진다.

부산 부산진구는 5일 부산시민공원 주변 노후 건축물 정비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건물주의 동의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공원 주변의 노후 건축물은 모두 36동이다. 구는 해당 건물의 외벽과 담장, 펜스 등 3824㎡에 색을 입힐 예정이다.

공원 우측 도로변에는 녹화사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예산 1억3200만원을 확보했다. 구는 이달 안에 작업에 들어가 공원 개장 전까지는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시민공원은 4월 30일 개장한다.

송상현광장 주위 28개 슬럼화된 건물도 정비된다. 주위에 쌓여 있던 건축물 잔재물을 치우고 담벼락 도색 작업도 한다.

노후화가 심각해 당장 정비가 어려운 건물은 큰 울타리를 쳐 시야에서 가리기로 했다. 구는 이달 중으로 건물주의 동의서를 받은 뒤 5월 개장 전에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구의 한 관계자는 "공원 주위의 미관을 보존하기 위한 임시방편적 조치로 해석될 수 있고 이후 도시계획에 맞춰 제대로 된 정비가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이 돌봄 서비스’ 가사 지원도

맞벌이 또는 특정한 사유로 인한 부모의 자녀 양육 공백을 메워주는 부산시 '아이 돌봄 서비스'가 한층 업그레이드된다.

부산시는 그동안 자녀 돌봄에 한정된 '아이 돌봄 서비스'의 서비스 범위에 '아동 관련 가사 지원 서비스'를 추가한다고 6일 밝혔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자녀 양육 공백 시 해당 가정을 방문해 보육, 놀이 등 하교(학원) 지원 등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소득별 시간당 1000원~5500원)를 말한다.

부산시는 아이 돌봄 서비스가 자녀 돌봄 서비스에 한정돼 가사 지원 등 부모의 다양한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올해부터 아동 관련 가사 지원 서비스를 추가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또 보육 서비스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 돌보미 파견을 통해 아동 특성별, 영유아 발달 단계별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부산시는 이를 위해 부산지역 12곳의 아이 돌봄 서비스 기관을 대상으로 돌보미 교육을 시행,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부터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이 주민센터 방문에서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개선되고 영아 종일제 대상도 만 12개월에서 24개월 까지 확대된다.

저소득층 이용 시간도 연 48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연장되고 돌보미 처우 개선 차원에서 4대 보험과 퇴직금이 지급된다. /연합뉴스

부산국제연극제 어린이 홍보대사 모집

부산국제연극제(집행위원장 김동석)조직위는 오는 16일까지 '제11회 어린이홍보대사'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모집 대상자는 간단한 영어 읽기 및 말하기가 가능한 초등학교 3~6학년 부산 거주 어린이로, 적극적이고 활발한 성격을 가진 어린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이들은 7차례 걸친 교육과 발대식을 거친 뒤 축제 기간 동안 부산국제연극제의 마스코트로 활동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국제연극제 홈페이지(www.bipaf.org) 참조. 문의 070(8672-8012

'찾아가는 분쟁 조정' 종부산 조정실 개소 5일 부산 서구 종부산등기소에서 윤인태 부산지법원장과 김형천 수석부장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종부산 조정실 개소식이 열렸다. 종부산 조정실에서는 지역 전문가로 구성된 9인의 조정위원들이 민사조정 신청 사건 등 이웃간의 작은 분쟁을 조정한다. 법원이 등기소 내에 조정실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도시농업 모든 것 한자리

박람회 27일부터 나흘간 벡스코서… 올해 무료 입장

부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숙)는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해운대 벡스코에서 '제1회 부산도시농업박람회'(사진)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도시농업'을 미래 농업으로 신성장 동력화하고 도시와 농촌이 함께 상생하는 농업 공동체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자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부산시가 주최하고 부산도시농업박람회추진위원회 및 KNN 공동 주관으로 진행되며, 4만여 명 이상의 도시농업 관계자 및 관람객들이 참가할 것으로 주최 측은 내다봤다.

특히 올해는 입장료를 무료로 전환함에 따라 더 많은 시민들이 박람회에 참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 내용은 크게 도시농업 가치 홍보를 위한 '도시농업 주제 기획관', 전시관, 교육·체험관, 특별 부대행사 등으로 꾸며진다.

먼저 이번 박람회의 메인 주제관인 '도시농업 주제 기획관'은 도시재생과 환경 개선 등 도시농업의 가치와 역할 및 도시농업 실천 방안을 홍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도시민들이 가정에서도 쉽게 채소를 기를 수 있고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도시농업산업관, 생활원예관 등이 운영되며 전국에 우수 농산물을 전시 판매하는 우수 농산물관이 마련돼 있다.

이 밖에 부산경남화훼원예농협의 꽃 전시, 농촌사진 전시행사와 애완곤충 등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전국 옥상 텃밭디자인 공모전 및 전국 가정원예 콘테스트가 실시될 계획이다. 도시농업 학술행사, 부산향토음식경연대회, 부산 생활원예 콘테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이번 박람회 주제관에 설치되는 텃밭정원은 행사 종료 후 사회복지시설에 70㎡ 정도 기부해 다시 태어나는 텃밭정원으로,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의미 있는 박람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도시농업박람회 홈페이지(dosinongup.com)를 참조하거나 부산도시농업박람회 사무국(051-642-5747) 또는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051-970-3730~2)으로 문의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는 풍성한 볼거리와 다양한 콘텐츠 도입으로 지역 농업의 필요성 인식 및 공감대를 형성해 농업 활동이 재미있고 즐거운 일상이 될 수 있는 변화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들에 많은 관심과 관람을 당부했다.

/정하균 기자 lnk@metroseoul.co.kr

40년 만에 발견된 물쇠오리 국립공원관리공단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지난달 25일 경남 통영시 한산면 거제도와 매물도 사이 해상에서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인 물쇠오리 2마리를 관찰했다고 5일 밝혔다. 해상에서 물쇠오리 2마리가 앉아 있거나 뒤섞거나 유유히 헤엄치고 있다. 경남 통영에서는 지난 1974년 물쇠오리 7마리가 발견된 이후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발견됐다. 작은 사진은 지난 2010년 우리나라 최대 물쇠오리 서식지인 전남 구굴도에서 촬영된 물쇠오리 모습. /뉴시스

'금남금녀의 벽' 깨지는 대학가

간호과에 남학생, 군사과에 여학생 지원 늘어

대학가에 '금남금녀(禁男禁女)의 벽'이 깨지고 있다.

금남의 영역이었던 간호학과에는 남성 지원자들이 늘어나는 반면 금녀의 영역이던 군사 관련 학과에 여성들이 몰리고 있다.

지난 3일 부산 동명대에서 열린 입학식.

간호학과 신입생(14학번) 30명 중 남학생 20명이 줄을 섰다.

이 대학 간호학과는 개설 첫해인 2010년 남학생이 한 명도 없었으나 2011년 1명, 2012년 6명, 2013년 12명이 입학하는 등 해마다 남학생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간호학과 신입생 신경민(19)군은 "응급실이나 수술실, 중환자실 등 특수 분야에서는 남자 간호사가 여자 간호사보다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지원 동기를 설명했다.

신입생 정경민(19)군은 "환자나 보호자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측면에서 간호사가 보람 있다고 생각해 지원했다"고 말했다.

옥지원 간호학과장은 "전문직으로서 비전이 있고 현재 높은 취업률 때문에 남학생들이 간호학과를 선택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동의대 간호학과도 남학생 비율(4학년 6명, 3학년 7명, 2학년 7명, 1학년 11명)이 조금씩 상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올해 신설된 이 대학 군사학과 신입생 30명 중에는 10명의 여학생들이 포함돼 있었다.

전문대학인 동부산대학 부사관학과는 정원의 30%를 여학생으로 선발하고 있다.

1·2학년 정원 300명 중 여학생이 90명이나 된다.

동의대 경찰행정학 전공의 경우 421명 중 여성이 198명으로 전체의 47%를 차지했다. 2학년은 전체 77명 중 여성이 44명으로 남성보다 많아 여성 파워를 실감시켰다. /연합뉴스

비염·축농증 무료 강좌

동의의료원은 오는 12일 오후 2시부터 동의의료원 7층 강당에서 무료 건강강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강의는 이비인후과 김대희 과장이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의 원인과 증상, 비염과 축농증의 차이점과 각 질환의 치료법에 관해 설명하고 실생활에서의 주의점도 설명할 예정이다. 참석자에게는 강의 책자를 제공하며, 강의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문의 (051)850-8679

청장년 제과제빵과정

국제제과제빵커피직업전문학교(원장 장은숙)는 오는 17일부터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청장년 맞춤훈련 제과제빵과정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교육 내용은 제과제빵자격증 품목, 케이크디자이너자격증, 제과제빵 현장실무 품목, 초크아트 과정으로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ekbl.co.kr) 참조. 문의 (051)464-8333

지방선거 출마 공무원 오늘까지 사직해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인태)는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오는 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 및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인 6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원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에는 그 직을 가지고 출마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경우와 공무원 등이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그 직에서 사직해야 한다.

통·리 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 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 참관인, 사전투표 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도 6일까지 사직해야 하고, 선거일 후 6월(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이울러 6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인터넷에 의정활동 보고서를 게재하거나 e메일·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는 의정 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가 나타나는 저술,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광고할 수 없으며, 입후보 예정자는 방송·신문·잡지 등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뉴시스

국제제과제빵 커피전문학교 제과제빵 커피 국비훈련생 모집
교육과정안내
2014년 부산시 청장년 맞춤훈련 상반기 모집
<제과제빵마스터반>
3/17 — 7/11
실업자계좌제
재직자과정
고용과정
464-8333
카페
100m지점

아파트 2년만에 다시 '분양가>매매가'

지난해 전국에서 공급된 아파트의 3.3㎡당 분양가가 2년 만에 매매가를 재역전했다.

신규 아파트 분양가는 기존 아파트 매매가보다 비슷하거나 높은 게 일반적이었지만 금융위기 이후 분양 시장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건설사들의 적극 마케팅이 이어지면서 역전됐다. 그러다 작년 분양 시장이 회복 국면에 진입하면서 2년 만에 다시 추월했다.

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3년 전국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951만원을 기록했다.

이에 반해 3.3㎡당 평균 매매가는 888만원으로 분양가보다 63만원이 낮았다. 올해 들어서도 1~2월 전국 분양가는 1065만원을 기록한 반면 매매가는 174만원 낮은 891만원을 기록했다. /이번옥기자

market index <5일>

코스피	코스닥
1971.24 (+17.18)	538.77 (+5.23)

금리	환율
2.90 (-0.01)	1070.50 (-0.50)

뉴스&뉴스

한은 외환보유액 사상최대

● 한국은행은 2월 말 현재 외환 보유액이 3517억9000만 달러로 전월 3483억9000만 달러보다 34억 달러 늘었다고 5일 밝혔다.

외환 보유액은 지난해 6월 3264억4000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7월부터 8개월 연속 증가하며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보유액이 늘어난 이유는 외화자산 운용 수익이 늘어나 외환 보유고가 늘었고 유로화 등이 강세를 보여 이들 통화표시 자산의 달러화 환산액이 커졌기 때문이다.

유가증권은 3228억9000만 달러로 1월보다 40억3000만 달러 늘었고 예치금은 6억1000만 달러 줄어든 181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박선옥기자

개인정보 거래 208명 적발

●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7일 발족한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의 활동을 토대로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매매한 혐의가 있는 업자 208명을 적발, 수사 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업자 21명이 같은 연락처로 총 163건의 인터넷 광고물을 게재했으며 국내뿐 아니라 중국(37건), 필리핀(3건), 미국(2건) 등 재외동포 커뮤니티에도 64건의 불법 광고를 올렸다.

감시단은 대출사기 등 불법 행위에 사용된 대포폰 등 1074건에 대해선 전화번호 이용정지 조치를 취했다. /김현정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651

발행·편집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인호
부산지사장·직대	김경준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459-2100
독자센터	02)721-9884

신형 쏘나타 문 열면 품격 가득

24일 공식 출시 앞두고 실내 이미지 공개 · 가격 2200만원대부터

현대자동차가 신형 쏘나타의 실내 렌더링 이미지와 가격대를 5일 공개했다.

신형 쏘나타의 실내 디자인(사진)은 안전성, 직관성, 간결성의 3대 원칙을 기반으로 ▲수평형으로 디자인된 안정된 느낌의 넓은 실내공간 ▲사용자의 편의와 직관성을 고려한 인간공학적 설계(HMI=Human Machine Interface) ▲완성도 높은 디테일과 고급스러운 컬러 및 소재 적용 등을 통해 세련되면서도 품격 있는 프리미엄 이미지를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현대차는 운전자를 향한 T자형 수평적 레이아웃을 적용해 운전자가 보다 운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왔다.

신형 쏘나타는 기존 현대차의 디자인 철학인 '플루이딕 스컬프처'를 한 차원 더 발전시킨 '플루이딕 스컬프처 2.0(Fluidic Sculpture 2.0)'을 신형 제네시스에 이어 두 번째로 적용해 기존 모델에 비해 정제되고 품격 있는 디자인을 완성했다.

이외에도 신형 쏘나타는 '잘 달리고, 잘 서는' 차량의 기본 성능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한편, 운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용운전 영역 중심의 동력 성능 향상, 독일 뉘르부르크링 서킷, 미국 모하비 주행시험장 등 국내외 곳곳에서 철저한 성능 검증을 통해 제품 완성도를 높였다.

또한 ▲초고장력 강판(AHSS Advanced High Strength Steel, 인장 강도 60kg급 이상) 적용 ▲구조용 접착제를 기존 모델 대비 확대 적용 ▲핫 스탬핑 공법이 적용된 부품 수 증가 등으로 차체 강성을 강화하고 차체 구조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충돌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한편, 7에어백 시스템 등 첨단 안전 사양을 적용했다.

한편 신형 쏘나타의 판매 가격은 가솔린 ▲누우 2.0 CVVL 모델이 2270만~2880만원 ▲세타 2.4 GDI 모델이 2400만~3010만원(이상 자동변속기 포함) 내에서 결정될 예정이며, 최종 가격은 이달 24일 신차 발표회 때 공개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가격대 공개와 함께 5일부터 전국 현대차 지점을 통해 오는 24일 출시 예정인 신형 쏘나타의 사전 계약에 돌입한다.

/정용혁기자 ferrari@metroseoul.co.kr

진정된 우크라이나 - 살아난 코스피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 기미를 보이고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7.5%로 유지하면서 코스피가 반등했다. 5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7.18포인트(0.88%) 오른 1971.24로 장을 마감하며 1970선 회복에 성공했다. /연합뉴스

얼굴 편 증권·건설·시멘트

내수활성화·中 경기부양 기대감에 주가 강세

업종 침체로 부진을 겪던 경기민감주들이 봄바람을 타고 기지개를 켰다. 내수 활성화와 중국발 경기 부양 기대감에 증권, 건설, 시멘트 업종 등의 중소형 종목에까지 골고루 훈풍이 불었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증권업종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26% 오른 1497.19를 기록했다.

유진투자증권이 5% 넘게 오르고 HMC투자증권, 골든브릿지증권이 2~3%대 상승폭을 보이는 등 대부분의 증권주가 강세를 나타냈다.

증권사들은 지난해 거래 급감과 적자 기업 속출로 고전을 겪었다. 주가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곳이 나올 정도였다.

그러나 최근 증권사 간 인수·합병(M&A)을 통한 구조조정 기대감과 함께 주가가 바닥을 쳤다는 인식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

건설주 역시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 등에 대한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다.

계룡건설이 상한가까지 치솟고 한신공영, 화성산업은 6~7% 넘게 뛰었다. 삼부토건, 대림산업, 삼호, 진흥기업 등도 2~3%대 상승 행진을 이었다.

바닥을 친 물가가 반등하고 중국이 시장이 기대했던 성장 목표치를 제시한 점도 호재로 풀이됐다.

이상원 비아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정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물가를 끌어올려 자산가격 상승을 유도하고 아울러 부동산 시장 활성화도 꾀하는 정책에 힘을 싣고 있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쌍용양회, 성신양회 등 시멘트주들도 시멘트 가격 6~10% 인상이 확정됐다는 소식에 업황 개선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주가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다.

김학균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다만 유례없는 저물가 기조에서 물가가 소폭 오르더라도 자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사태 진정과 중국이 3년 연속 경제성장 목표 7.5%를 제시하면서 경기 부양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현정기자 hkim18

가계 저축 증가율 6년래 최저

가계의 은행 저축성 예금 증가율이 6년 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가계가 은행에 돈을 맡긴 총 예금은 501조7015억원으로 1년 전보다 6.6%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저축성 예금(459조7435억원)은 5.5%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가계의 예금 중 요구불예금(41조9584억원)이 20.3%나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가계의 요구불예금 증가율은 지난 2001년(21.3%)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았지만 정기예금·적금 등 저축성 예금 증가율은 6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요구불예금은 저축성 예금과 달리 예금주가 지급을 원하면 바로 지급하는 예금으로 보통예금, 당좌예금 등이 해당된다. 이자율이 아주 낮아 목돈 마련 기능은 없지만 인출이 자유롭다. 가계의 저축성 예금 증가율은 지난 2008년 12.3%에서 2009년 9.7%를 거쳐 2010년 16.0%까지 상승했으나 2011년 9.4%, 2012년 6.2% 등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둔화됐다. 기본적으로 가계의 여윳돈이 풍부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김현정기자 minji@

삼성 커브드 UHD TV 최대 100만원 할인 삼성전자 모델들이 커브드 UHD TV를 감상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대 100만원 할인 혜택이 있는 커브드 UHD TV의 예약 보상 판매 행사를 31일까지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삼성전자 제공

한국은행 인사태풍 부나

파격발탁된 '김중수맨들' 새 총재 취임 이후 잔존 여부 주목

한국은행의 새 총재로 이주열 전 한은 부총재가 내정되면서 한은에 '인사 태풍'이 휘몰아칠 조짐이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일부 한은 간부의 '도미노 이동'이 현실화될지 여부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통 한은맨이 총재로 복귀하면서 임원급은 물론 국·실장급 인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은 내부에서는 '사화' 수준의 인사 태풍이 불 것이란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김중수 현 총재가 다소 파격적인 발탁 인사를 통해 변혁을 이끌어 왔기 때문에 김 총재 시절 외부에서 영입됐거나 고속 승진을 했던 임원들에게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총재가 외부에서 영입한 김준일 부총재보, 여성 출신으로 처음으로 임원이 된 서영경 부총재보가 대표적인 발탁 인사다.

김준일 부총재보는 지난 2010년 12월, 3년 임기의 경제연구원장 겸 수석이코노미스트로 내정된 데 이어 1년이 안 된 2012년 2월에는 부총재보로 내정돼 주위를 놀라게 했다. 특히 외부 인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내부 보직을 거치지 않고 부총재보에 올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서영경 부총재보 역시 관심의 대상이다. 서 부총재보는 2급 승진을 한 지 2년이 채 안 된 2012년 말에 1급으로 승진했고, 7개월 만에 부총재보 자리에 올랐다.

당시 한은 안팎에서는 여성 대통령 시대가 도래한 것과 맞물려 이런 초고속 승진이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흘러나왔다.

한편 금통위원 가운데 다음달 말 임승태 금통위원의 임기가 끝난다. 한은법상 금통위원에는 총재·부총재, 5개 경제 유관 단체장이 각각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금통위원 5명 등 총 7명이 참여한다. 임 위원의 후임으로도 한은 고위직 출신이나 전직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가 추천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월세 소득 2000만원 이하 2년 비과세

2016년 분리과세 전환

2주택 보유자로 월세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는 앞으로 2년간 비과세하고, 2016년부터 분리 과세로 전환하게 된다. 2년간의 비과세를 감안해 과거 소득분에 대한 세금 부과도 최소화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으로 지난 2월 26일 발표한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분리 과세하기로 발표한 2주택 보유자로서 월세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 사업자의 경우 향후 2년간 비과세한 후 2016년부터 분리 과세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과거 소득에 대한 과세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과세 정상화 측면에서 선진화 방안이 올바른 방향이라 하더라도 시장에 불안해한다면 시장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정책의 타이밍과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기업 간 인수 합병(M&A)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는 "우선 사모투자전문(PEF) 전략적 투자자 등 M&A 매수자에 대해 자금의 조성, 투자, 관리, 회수 등의 단계별로 시장 참여를 제약하는 규제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성장 사다리펀드 내 M&A 펀드의 규모를 3년 이내에 1조원으로까지 늘리고, 주식 교환 방식의 M&A에 대해서도 세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또 상장법인의 합병가액 규제를 완화하는 등 경직적인 M&A 기준과 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박선옥기자 pso5321@

참치모둠회 2만원도 안되네 5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홍보도우미들이 참치모둠회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오는 12일까지 초주산 참치모둠회(300g)를 40% 가량 저렴한 1만9100원에 판매한다. /연합뉴스

전립선비대증(간단히! 한번에! 시원하게!)

KTP 레이저를 이용한 광선택기화수술로 확실하고 안전하게

[illegible]

1. 대한비뇨기과학회 회원 역임
2. 비뇨기과개원의협의회 초대회장
3. 미국비뇨기과학회 회원
4. 국제비뇨기과학회 회원
5. 대한남성과학회 회원
6.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외래교수

발기부전, 조루증의 맞춤치료

[illegible]

◈발기부전이란?

◈조루증이란?

◈발기부전의 원인

◈심인성 발기부전의 원인

◈기질적 발기부전의 원인

◈조루증의 원인

◈발기부전의 치료방법

◈조루증의 치료방법

[illegible]

박용상비뇨기과의원 원장 의학박사 박용상 원장 의학박사 박종원

문의 : 051)241-5060 www.bestdoctor.co.kr

통신공룡 군살 빼는 '황 트레이너'

임원급 50% 축소 '채찍'… KT맨 중용 '당근'… 위기 넘을 몸 만들기 중

Issue&View
KT와 황창규 회장의 한달

/서샛별기자

황창규(사진) KT 회장이 취임한 지 한 달여가 지났다.

지난 1월 27일 주주총회에서 공식 취임한 황 회장은 취임 후 한 달여간 KT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기존직원 가상리며 삼성식 경영

황 회장이 취임 후 가장 우선적으로 나선 것이 조직 개편과 임원 인사 단행이다. 우선 황 회장은 최근 임원급 직책 규모를 50% 이상 축소하고 슬림화에 따른 인력을 현장에 배치해 영업력 강화에 주력하도록 했다. 전체 임원 수도 130여 명에서 100여 명 수준으로 27% 줄였다.

삼성에서의 경영을 바탕으로 KT그룹 싱크탱크 역할을 할 '미래융합전략실'도 신설됐다. 미래융합전략실은 각 부문·실, 그룹사별 핵심 역량을 진단하고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로 미래 성장 엔진을 발굴할 계획이다. 미래융합전략실 실장에는 과거 KT에서 신사업추진본부장, 미디어본부장 등을 지낸 윤경림 전무가 선임됐다.

이 밖에도 전반적으로 황 회장은 KT맨을 신임했다. 주요 직에 대부분 KT 출신을 선임한 황 회장은 다만 그룹의 자금을 관리하는 재무실장에는 삼성 출신인 김인회 전무를 영입해 눈길을 끌었다.

◆엘리베이터·구내식당에도 변화

황 회장이 취임한 뒤 변화의 눈길을 끈 것 중 하나는 KT 사옥 내부 시스템이었다. 우선 광화문 사옥의 경우 엘리베이터가 1층부터 15층에 이르기까지 모두 서는 형태였지만 황 회장 취임 이후 저층용, 고층용, 전층용으로 각각 나눠 운영하기 시작했다. 저층용은 1~9층과 15층, 고층용은 1층과 9~15층을 운행하면서 효율적인 이용이 이뤄지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구내식당 이용 역시 기존에는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배식이 이뤄졌지만 최근 이를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30분 축소했다. 이 과정에서 부서별 점심시간을 각기 다르게 배정하면서 이전보다 더 원활한 배식이 이뤄지는 모습을 보였다.

◆대출사기·영업정지 등 숙제 산적

KT는 최근 KT ENS 직원과 협력업체가 짜고 벌인 3000억원대 대출사기 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또한 보조금 대란으로 인해 과징금 및 영업정지 등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여전히 손해가 극심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해외 사업도 문제다. 이 때문에 황 회장은 이전 회장 시절 벌여놓은 사업들 중 시너지가 없거나 부실한 사업을 상당수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BIT 프로젝트는 과감히 정리됐다. 이로 인해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볼 [illegible] 차라리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KT 관계자는 "대내외적으로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인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황 회장의 과감한 리더십과 임직원들의 노력을 통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임금·복리 차별하면 3배 보상

이르면 올해 9월부터 사측이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임금·복리후생 등 측면에서 고의로 차별하다가 적발되면 차별 금액의 최고 3배를 보상해야 한다.

한 사업장에서 한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만 차별을 인정받아도 같은 조건에 있는 다른 근로자도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 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5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국회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기간제법)과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파견근로자법)이 3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9월부터 법률 개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특히 이달 중 공포되는 개정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법은 사용자가 고의·반복적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 조건을 차별할 경우 발생한 손해액의 3배까지 해당 근로자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법안은 한 사업장에서 한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 인정을 받은 경우 같은 조건에 있는 다른 근로자도 차별적 처우가 개선되도록 시정명령의 효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사용자가 이런 내용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담을 지게 된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게 초과근무를 시킬 때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차원이 다른 5도어 쿠페… 아우디 RS7 스포트백 출시 아우디코리아가 5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전시장에서 고성능 5도어 쿠페 '아우디 RS7 스포트백'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막 짓던 아파트 '수요자 맞춤' 변신중

전용면적·평면 다양화

공급자는 짓기 편하지만 수요자는 살기 불편했던 아파트가 공급자는 짓기 까다로워졌지만 수요자는 살기 편한 아파트로 변화하고 있다. 분양 시장 회복에도 불구하고 심화된 양극화로 인해 더 이상 "살 테면 사고, 말 테면 말라"는 식의 영업 방식이 통하지 않게 되서다.

이에 따라 과거 중소형이라 하면 천편일률적으로 전용면적 59㎡(25평형), 84㎡(33평형) 아파트만 공급됐다면 요즘에는 74㎡(28평형), 79㎡(29평형) 등 틈새 평형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또 같은 면적이라도 타입을 여러 개로 나눠 다양한 수요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바야흐로 아파트가 사람에 맞추는 시대가 등장한 것이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서울 성수동 트리마제 아파트에 소형부터 대형 펜트하우스까지 25~216㎡의 다양한 주택형을 제공한다. 가족 규모나 구성원 변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늘려주겠다는 의도에서다.

또 맞벌이 부부 증가 현상에 맞춰 카페테리아 내 특급호텔 수준의 조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청소, 세탁, 발레파킹, 교통, 호텔 레스토랑 예약부터 관공서 업무 대행까지 맡아주는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효성은 경북 칠곡군 남율2지구 효성해링턴 플레이스3차에 앞서 1·2차에 적용해 인기를 끌었던 1층 하부 필로티를 다시 한번 선보인다.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 공간을 덤으로 제공함으로써 서재, 극장, 놀이방 등 입주민이 필요한 맞춤형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최근 틈새 평형으로 각광받고 있는 전용면적 74㎡를 절반 이상 배치했다.

중흥종합건설이 경남 창원시 현동지구 일대에서 분양 중인 '창원 현동 중흥S클래스2차'는 선택형 내부 인테리어를 도입해 눈길을 끈다. 세련된 타입의 '어반클래식'과 고급스러운 느낌을 강조한 '노블클래식' 총 2개의 스타일로 구성, 수요자 기호에 맞는 선택이 가능하게끔 했다. /박선옥기자

전국 재건축 아파트 8000가구 연내 분양

이달 이후 전국적으로 7900여 가구의 재건축 아파트가 분양된다.

5일 부동산 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3월부터 연말까지 전국에서 분양 예정인 재건축 아파트는 22개 단지 7997가구다.

올해 재건축 분양 아파트 중 특히 강남권 물량이 눈에 띈다. 우선 이달 대림산업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경복아파트를 헐고 전용면적 84~113㎡, 총 368가구를 짓는 '아크로힐스 논현'을 이달 분양한다. 57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이다.

같은 달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한 '고덕 래미안 힐스테이트'를 분양한다. 전용면적 59~192㎡, 전체 3658가구의 매머드급 단지로 84~192㎡ 1114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이외 GS건설이 강남구 역삼동 '역삼자이'를, 대림산업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를,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각각 서초구 서초동에서 서초우성3차와 서초삼호를 재건축한 아파트를 연내 공급한다.

또 이르면 12월 삼성물산·현대산업개발·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1·2차를 전용면적 39~150㎡, 총 9510가구로 탈바꿈하는 '가락시영 재건축' 아파트도 공급된다. 일반 분양분도 1572가구에 달한다. /박선옥기자

大賞
사세확장에 따른 중간관리자 모집
효성·하나그룹 협력업체
40대 열정 있으신 남녀
주 5일 09:00~18:00
급여는 면접 후 결정
02)2265-1221/2274-8037

(광고)

이순재가 8년동안 OK실버보험을 추천드리는 이유 나이가 많아도 아픈데가 있어도 문제없이 가입 가능

50세에서 81세라면 무진단 무심사로 쉽게 가입

불경기가 지속되고 있는 요즘 79세 용 할머니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아들 내외의 푸념에 마음이 편치않다. 뭔가 큰 도움 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데다가 괜히 몸이 아프기라도 하면 치료비 부담까지 줄까봐 걱정이 이만 저만 아니다.

부모 마음이 다 그렇듯 자식들 부담 하나 줄여 볼 마음으로 보험 가입하려고 보니, 나이도 많고 매일 먹는 약도 한 두가지가 아니라서 그것마저도 쉽지 않은 터였다. 그러다 우연히 TV에서 무진단 무심사라고 하는 이순재 씨의 광고를 보고 전화 상담을 받아보게 되었다. 노인들이 흔히 갖고 있는 질환들 때문에 가입하지 못하는 보험들이 많았는데 문제없이 가입된다 하니 마음이 든든해졌다.

'라이나 (무)OK실버보험(갱신형)'은 보험 가입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무진단 무심사 보험이다. 50세에서 81세라면 병이 있어도, 약을 먹고 있어도, 병원에 다니고 있어도 전화 한 통으로 바로 가입할 수 있다.

또한 가입 2년 이후 사망 시 사망보험금 전액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어 남은 가족들이 요긴하게 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재해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고려해 가입 후 재해로 사망하신 경우 일반사망보험금의 두 배를 지급해 더 든든하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자세한 사항은 080-590-8585에서 무담 없이 상담 받을 수 있다.

*최초계약 7년 만기 후 매 5년 마다 갱신되는 상품

OK실버보험(갱신형)
24시간 무료상담 및 문의
080-590-8585

새학기 수다쟁이 통화료 걱정그만

개학시즌엔 음성 할인·데이터 빵빵한 요금제 골라 쓰세요

3월은 학교에서 처음 만난 친구들과의 스마트폰 수다가 늘어나는 계절이다. 새 학기에 어울리는 통신 3사 서비스를 소개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같은 학교 학생에게 발신하는 국내 음성·영상 통화를 반값에 제공하는 'T끼리 선교생 할인' 요금제를 운영 중이다. 혜택 제공 기간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3년, 대학생은 6년이다. 이용료는 무료이며 휴학생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대학원생은 제외된다.

KT는 개강을 맞아 'LTE 데이터플러스' 신규 요금제를 출시했다. 기본 데이터 제공량이 부족해 추가로 데이터를 사용하려는 LTE 스마트폰 요금제 가입 고객을 겨냥한 것이다. 이 요금제는 LTE 스마트폰의 데이터 이월 요금제 가입 고객이 추가 데이터 사용을 원할 때, 총 3종의 데이터량 가운데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월 정액 8000원이면 500MB를, 1만3000원 1GB, 1만8000원의 경우 2GB를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기본 데이터 제공량을 초과할 때 월 9000원으로 추가 과금 없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LTE 안심옵션' 서비스를 운영한다. LTE 데이터 단말기끼리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LTE 데이터 셰어링 요금제도 있다.

통신 3사 이벤트를 잘 이용하면 신학기 준비물도 마련할 수 있다.

SKT는 12일까지 네이버 검색창에 광고 카피 '잘생겼다 LTE-A'를 검색하는 이용자 중 추첨을 통해 새내 서브백과 아이패드 에어 등을 증정한다.

KT는 올레클럽 고객을 대상으로 신학기를 위한 쿠폰 및 무료 제품 기획전을 31일까지 연다. 회원이라면 누구나 포인트 등을 사용해 인강, 문구류 등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LG U+는 지드래곤 아이템 이벤트를 14일까지 진행한다. 자사 LTE 모델 지드래곤의 광고 미공개 영상을 U+ 박스에서 감상한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친구들과 공유하면 지드래곤의 친필 사인이 들어있는 제이에스티나 백팩을 받을 수 있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이마트, 세컨드TV 출시 5일 서울 성동구 이마트 성수점 가전매장에서 도우미들이 새로 선보이는 이마트 드림뷰 24형 LED TV를 선보이고 있다. /신세계 제공

60세 이상 사망원인 1위는 '암' 100세까지 길게 보장해주는 암보험 필요!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하는 라이나 실버암보험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3대 사망원인은 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이다. 그 중에서도 압도적인 1위는 바로 암.

하지만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9명은 암보험 하나 없는 실정이다.

나이가 많으면 늘고 싶어도 늘기 힘든게 암보험인데, '라이나 (무)실버암보험(갱신형)'은 61세부터 80세까지 가입할 수 있어 암 걱정하는 어르신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위암, 폐암, 대장암 같은 자주 발병하는 암에서 백혈병, 뇌암, 골수암 같은 치료비 많이 드는 암은 물론 요즘 빈발하는 전립선암, 갑상선암, 유방암, 기타 피부암까지 어떤 암도 진단 확정 즉시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해준다. 또한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길게 보장 받을 수 있으며 14개 노인성 질환(고혈압, 골다공증, 백내장 등)이 있어도 간편 심사를 통해 쉽게 가입할 수 있다. 거기에 업계 최초로 (무)실버암사망특약(갱신형)에 가입하면 암 사망금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걱정만 한다고 해결되는 일은 없다. 암보험 없는 61세 이상이라면 지금 전화로 상담해 보자. 큰 걱정 하나 덜 수 있는 방법이다. 문의전화 080-951-8585

실버암보험(갱신형)
24시간 무료상담 및 문의
080-951-8585

팬택 워크아웃 확정…부활 위한 AS 강화

팬택의 워크아웃이 확정됐다. 하지만 팬택은 이와 별개로 고객 신뢰를 위해 사후 서비스 강화 프로그램에 나선다고 밝혔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단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점에서 제1차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열고 팬택의 워크아웃 신청을 받아들였다. 팬택은 이에 따라 26개월 만에 두 번째 워크아웃에 들어가게 됐다.

팬택은 서비스센터 토요일 운영 시간 연장, 이마트 서비스센터 연내 20개 이상 추가 오픈, 베가 시크릿업 킷캣 업그레이드 등 사후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팬택 제공

반면 팬택 측은 이와는 별개로 고객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팬택 서비스센터 토요일 운영시간 연장 ▲이마트 입점 서비스센터 연내 20개 이상 추가 오픈 ▲'베가 시크릿 업'을 시작으로 순차적인 운영체제(OS) 킷캣(안드로이드 4.4) 업그레이드 계획을 발표했다.

서비스센터 운영시간의 경우 토요일도 평일과 동일하게 오전 9시~오후 6시까지로 3시간 연장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시작한 이마트 내 서비스센터 입점을 올해 말까지 전국 35개 이마트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팬택은 다음달 '베가 시크릿 업'을 시작으로 기존 모델의 OS를 킷캣(안드로이드 4.4)으로 업그레이드한다. 킷캣 업그레이드 시 사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기존 기능을 한층 개선하고 신규 기능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서희정기자 ssuh@

페이스북·구글 '오지 인터넷 보급' 전쟁

'아프리카 사막·아마존 정글에서도 인터넷을 즐길 수 있게 하자'

세계 인터넷 산업의 양대 산맥인 페이스북과 구글이 '오지 인터넷 보급'을 놓고 치열한 아이디어 전쟁을 벌이고 있다. 위성을 발사해 지구 전역을 인터넷으로 묶겠다는 '이리듐' 서비스 보급이 비싼 사용 요금 때문에 20여 년째 지지부진하자 보다 저렴한 방법으로 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속출하고 있다.

정보기술(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는 페이스북이 태양광 무인비행체(UAV) 제작업체 '타이탄 에어로스페이스'(사진 왼쪽)를 인수하는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타이탄 에어로스페이스의 '솔라라 60' 모델 1만1000대를 사용해 아프리카 지역부터 무료 무선인터넷을 보급할 계획이다.

페북 태양광 무인기로 통신망 제공 추진

솔라라 60'은 태양광으로 작동하며 해발 20km 고도에서 5년간 연속 비행이 가능하다.

비행 고도가 낮아 비행기와 내듬 유직인다는 점에서 지구 주변 궤도를 도는 인공위성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인공위성과 큰 차이가 없고 제작 발사·관리 비용이 낮다고 테크크런치는 설명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등 저개발국가에 무료 무선인터넷을 보급하는 '전 세계 인터넷 연결사업 (internet.org)'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한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4' 기조연설에서 "현재 세계 인구 3분의 1인 27억 명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고 나머지 50억 명은 인터넷을 접할 수 없는 환경"이라며 "인터넷 연결은 인간의 권리이며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구글 열기구 이용 프로젝트 진행 '착착'

이보다 앞서 구글은 열기구로 무선인터넷을 제공하는 프로젝트 '룬(Loon·오른쪽)'을 지난해부터 진행 중이다. 열기구는 항공기의 2배 높이인 고도 20km 성층권에 띄워 탑재된 인터넷 중계기로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뉴질랜드 등에서 실험을 진행해 3세대(3G) 휴대전화망 수준의 인터넷 속도를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절친과는 사업도 잘떡궁합?

글로벌 이코노미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는 '절친'. 평소 호흡이 척척 맞는 친구와 사업을 하면 비즈니스를 할 때도 '찰떡 궁합'이 될까.

최근 영국 BBC 방송은 친구와 사업을 시작한 여성 창업주들을 소개하며 '절친 비즈니스'의 장단점을 짚었다.

수영복 모델인 넬 로빈슨(27)과 패션 바이어인 엔 마리 클라크(29). 두 사람은 고등학교 시절 만나 돈독한 우정을 쌓아왔다. 클라크는 수영복 업체 '벨'을 창업하면서 혹시라도 사업 문제로 다퉈 우정에 금이 갈까봐 가장 두려웠다고 밝혔다.

그는 "사업을 하다 보면 좋지 않은 일도 생길 텐데, 이 때문에 관계가 나빠질까 봐 걱정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친구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처음에는 말과 행동을 매우 조심했다"면서 "하지만 사업할 때는 솔직한 비판과 조언이 최상의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경험으로 터득했다"고 덧붙였다.

◆ 친구와 동업자 모호한 경계

친구와 사업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는 친구와 동업자 사이의 모호한 경계다. 친한 친구를 매몰차게 비즈니스 파트너로만 여겨 사무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아파트 룸메이트로 만난 알렉시스 미예슨(38)과 제니 던다스(43) 두 사람은 지난 2007년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 유기농 아이스크림 업체 '블루 마블'을 창업했다.

미국 유기농 아이스크림 전문업체 '블루 마블'의 공동 대표인 제니 던다스(왼쪽)와 알렉시스 미예슨 /BBC 제공

두 사람은 친구이자 동업자로 일하면서 종종 애를 먹은 때가 있다고 했다. 동업자로서 날카롭게 비판을 하면서 동시에 친구로서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이중생활' 때문. 사업상의 일로 다툴 때 감정이 개입돼 자칫하면 상처를 줄 수도 있다고 두 사람은 입을 모았다.

"사업 초기에 많이 힘들었죠. 우정에 흔들릴 정도는 아니었지만 의견 충돌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요. 서로 취향이 달라서 제품 디자인 등을 결정하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미예슨은 "매출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둘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기도 한다"고 말하며 웃었다.

두 사람의 협업 덕분에 블루 마블의 매출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2년에는 뉴욕시에서 최초로 유기농 아이스크림 전문점으로 인증을 받았다. 또 블루 마블은 브루클린 지역에 판매 상점은 물론 제조 시설까지 갖추면서 유기농 아이스크림 전문업체로 나날이 성장해가고 있다. /seorim@

'내가 꾸미는 주방' 5일 오전 서울 강서구 등촌로 '프라이빗 도밍 홈 인테리어 유통매장 현대 플래그샵(Flagshop) 목동점'에서 관계자들이 부엌 상품 기기와 수납 시스템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키친랩(Kitchen Lab)'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두눈으로 콘텐츠 보는 스마트 안경

엡손 '모베리오 BT-200' 내놔…가볍고 작아져

구글의 야심작 '구글글라스'가 올해 안으로 출시될 예정인 가운데 스마트 안경 시장을 선점하려는 브랜드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이 프린터로 유명한 엡손이다. 엡손은 지난해 '모베리오 BT-100'이라는 상용 제품을 이미 선보였다. 그런데 채 지나지 않았는지 1년 만에 더 향상된 제품을 내놓았다.

5일 공개한 2세대 스마트 안경 '모베리오 BT-200'이 주인공이다. 스마트 안경은 어떤 앱을 설치하느냐에 따라 쓰임새가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스마트폰과 같은 휴대용 기기에 있는 동영상 등을 무선으로 즐길 수 있다.

구글글라스의 경우 사람 얼굴을 인식하는 기능, 사이에 들어온 물건을 바로 사는 기능 등이 장착될 예정이다.

엡손의 신제품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하고, 전체적으로 구글글라스와 분위기가 흡사하지만 '양안식'이라는 구동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다.

구글글라스는 디지털 신호가 한쪽 눈 부분에만 나타나지만 모베리오 BT-200은 양쪽 눈 부분에 LCD 프로젝터와 광학장치를 내장해 두 눈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볼 수 있다.

게다가 디지털 신호를 끄면 일반 안경으로도 쓸 수 있어 바깥의 사물을 보기 힘든 여타 제품과 차별화된다.

제품의 무게는 88g으로 1세대 제품보다 48% 가벼워졌고, 부피도 120cc로 전작보다 64% 줄었다는 게 엡손 측 설명이다.

엡손의 스마트 안경 '모베리오 BT-200'을 쓴 모델들이 스마트폰의 동영상을 감상하고 있다. /엡손 제공

액정 패널 해상도는 960×540을 채용했고, OS는 안드로이드 4.0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를 적용했다. 한 번 충전하면 6시간 동안 동영상을 볼 수 있다.

모베리오 BT-200은 이르면 5월에 출시되며 가격은 70만원대다.

/박성훈기자 zen@

"MS 윈도 공짜…구글 붙자"

사티아 나델라 CEO 승부수 자체 검색엔진으로 수익 노려

"우리는 모든 업무를 명확하면서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런 배경의 리더십을 공유해야 한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새로운 수장으로 발탁된 사티아 나델라(사진) MS 최고경영자(CEO)가 5일(현지시간) 직원들에게 보낸 e메일의 핵심 내용이다.

공교롭게도 e메일이 발송된 날 MS는 윈도7 사용자를 대상으로 최신 운영체제(OS) 윈도8.1을 공짜로 푼다고 밝혔다. 즉 안드로이드 OS처럼 줄 때는 화끈하게 무료로, 대신 부가 사업 모델을 장착해 수익을 올리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MS가 윈도를 저가 노트북에 한해 1만6000원에 공급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수차례 외신으로 전해왔으나 기존 사용자를 대상으로 갓 나온 제품을 그냥 준다고 한 것은 '파격' 그 자체다.

구글의 다양한 공짜 소프트웨어로만 작동하는 노트북 '크롬북'의 급성장과 함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모바일 OS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렵다고 MS가 판단한 셈이다.

MS의 효자 상품인 윈도가 무료 배포되면 수익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MS가 이 같은 승부를 던진 것은 자체 검색 엔진 '빙'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공짜 윈도8.1은 빙이 통합된 운영체제다. 인터넷 서핑을 할 때 검색창에 입력을 하면 빙이 결과를 찾아주고 이에 따른 광고나 검색어 수익을 노리겠다는 전략이다.

미국 IT 전문매체인 더버지는 "MS가 구글과의 전쟁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공짜 윈도는 제조사는 물론 개발자들의 주머니를 불려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앞서 MS는 모바일 운영체제 윈도폰 도 사실상 공짜에 내놓은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구글 안드로이드 OS가 '무료' 날개를 달고 글로벌 시장에서 80%에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함에 따라 무료는 기본이고 '+알파'를 선보일 것을 예고했다.

PC에서는 물론 모바일 세상에서도 MS와 구글은 피할 수 없는 영속이 됐다. 이제 관련 포인트는 누가 먼저 백기를 드느냐다.

무료 OS 앱 전략을 이어온 구글과 달리 갑자기 OS를 무료로 전환키로 한 MS가 일단 강편치를 한 대 맞고 시작하는 싸움임은 분명하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TV의 듣는 즐거움

IT도 인문학이다

/박성훈기자 zen@

얼마 전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뱅앤올룹슨 매장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덴마크에서 건너온 이 브랜드는 스피커 한 대가 1000만원에 육박할 정도로 비싼 가격표로도 유명하다.

게스트 라운지에서 판매 중인 TV를 봤는데 투박한 외관에 깜짝 놀랐다. 세계 TV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국내 대기업에서 만든 TV는 날씬하고 시크한 느낌인 반면 뱅앤올룹슨의 TV는 네모 반듯하면서 약간 비만인 듯한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말해본다. 이 제품은 '베오비전 11'(사진)으로 47인치 가격 1590만원이다. 삼성·LG의 '미스코리아' 뺨치는 몸매를 지닌 최신형 디지털 TV는 비싸도 200만원 안팎이다.

즉 최대 8배 가격 차가 나는 이 덩치 큰 제품이 왜 이토록 통통해졌을까 하는 의문이 든 것이다.

호기심을 품고 제품을 켠 뒤 화질을 점검했다. 일본 파나소닉이 패널을 장착한 이 제품의 화질은 국내 기업의 그것과는 큰 차이가 없어 보였다. 10분쯤 지났을까. 의문에 대한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다. 바로 '소리'였다. 구하기 어려운 영화표를 얻어 맨 앞자리에서 스크린을 우러러보며 작품을 관람할 때 접했던 그 사운드 말이다.

가슴을 찌르는 듯한 저음의 사운드, 이슬이 호수 표면에 떨어질 때 나는 청아한 고음의 소리를 이 TV는 충실하게 전달하고 있었다.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일반 TV에 비해 스피커 기능이 매우 뛰어나다. 6개의 스피커 수는 물론 출력 역시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크다.

"소비자를 감동시키기 위한 충분한 사운드를 전달하려면 일정 수준의 스피커 스펙이 충족돼야 한다. 결국 스피커 성능을 위해 부득이하게 제품 두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는 간략하면서도 명확한 설명과 함께 베오비전 11의 두께(6cm)가 삼성·LG 제품의 6배 수준이라는 추가 정보도 건네줬다. 한마디로 TV의 본질은 보는 것과 듣는 것인데 보는 것에 치중하느라 듣기의 즐거움을 포기할 수 없다는 얘기다.

국내 대기업 임원에서도 할 말은 있다. "TV는 누구나 볼 수 있고 가질 수 있어야 하는 사실상의 생필품 아니냐?"

맞는 말이다. 1500만원짜리 TV와 200만원짜리 TV는 만날 수 있는 주인이 다르다. 그렇다면 제품의 본질은 어떤 시선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인데…

볼 때마다 바뀌는 것을 본질이라 할 수 있을까. 아님 매번 달라지는 게 진정한 본질일까.

대용량 데이터 어디서든 접속 'ADM 2.1' 출시

개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편리해졌다.

시스템 전문기업 아수스토어의 한국 공식 공급사 에이블스토어가 5일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NAS(네트워크 스토리지) 운영체제인 아수스토어 데이터 매니저(ADM) 2.1 최신 버전을 선보였다.

ADM 2.1은 개인 클라우드 저장장치인 NAS를 보다 직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파일 탐색기 창에서 NAS와 컴퓨터의 파일 디렉토리를 한번에 볼 수 있고 PC 없이 고화질(HD) TV와 연동해 미디어플레이어를 재생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등 모바일로도 개인 클라우드를 관리할 수 있어 편하다.

아수스토어 데니스 치우 세일즈 매니저는 "데이터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노트북 등에 저장하는 것이 점점 불가능해지고 있다"며 "ADM 2.1을 이용하면 개인도 대용량 데이터를 언제 어디서든 신속히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kmlee@

접수기간 ~3.20(목)까지
교육기간 2014. 3. 24~8. 29(5개월)
국비무료교육
일자리 job아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두르세요~
고용노동부 충청남도

2014 교육생 정기 모집
▶ 3년 연속 취업률 90%이상 달성(2011~2013)
과정1 자동화장비 설계인력 양성과정(기구설계)
과정2 자동화장비 PLC제어설계인력 양성과정
과정3 자동화장비 PC제어설계인력 양성과정
모집개요
대 상 만 30세 이하의 고졸 및 대졸 미취업자
모집인원 각 30명
교육생 혜택
Tel. 041) 589-0661

14학번 멋쟁이 '응답하라! 야구점퍼'

올봄 캠퍼스 패션 '스포티즘' 바람 분다

대학가는 개강과 함께 옷차림이 가벼워진 새내기들로 활기를 되찾았다. 올봄 새내기들의 복장을 보면 스포티한 스타일의 아이템이 눈에 띄게 많아진 점이 특징이다.

패션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는 소치 동계올림픽, 브라질 월드컵, 인천아시안게임 등 스포츠 행사가 많아 '스포티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스포티즘의 대명사 '야구점퍼'

스포티즘 바람을 타고 일명 '야구점퍼'로 불리는 스타디움 재킷이 잇아이템으로 떠올랐다. 스타디움 재킷의 울 혼방 소재는 보온성이 뛰어나 늦겨울부터 봄까지 착용할 수 있어 실용적이다. 색상은 더욱 다채로워졌다. 트루릴리전의 부다리그 재킷은 블루 컬러에 허리와 소매 끝의 화이트 스트라이프 밴딩으로 스포티한 분위기를 한층 더 가미했다.

귀여운 이미지를 어필하고 싶은 여성은 레드와 옐로가 믹스된 스타디움 재킷이 안성맞춤이다. 이때 슬림한 디자인을 선택하면 레이어드하기 용이할 뿐만 아니라 보디라인을 살려 여성미를 뽐낼 수 있다.

트루릴리전의 관계자는 "급작스럽게 따뜻해진 날씨에 봄 아우터 준비를 서두르는 이들이 눈에 띈다"며 "스타디움 재킷은 데님에 매치하면 캐주얼한 느낌을 살릴 수 있고 블라우스와 함께 코디하면 시크한 룩을 연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스포티즘의 완성 '스니커즈'

스포티즘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이 단연 스니커즈다. 특히 올봄은 네온 컬러의 믹스매치와 과감한 포인트 제품이 눈에 띈다.

스니커즈 전문 브랜드 수페르가의 제품은 오렌지, 라임, 블루 등 단색의 화사한 컬러감이 스니커즈만으로도 스타일에 강렬한 포인트가 된다. 또 독특한 색감과 패턴으로 유명한 스프리스에서는 화려하고 개성 있는 색감의 '조커라인'을 출시해 디자인 반 마니아층에게 어필하고 있다. 시즌을 막론하고 패션피플들이 선호하는 포인트 스타일은 애니멀 패턴이다. 표범 무늬나 얼룩말 문양은 꾸준하게 사랑받고 있는 패턴으로 특히 수페르가의 애니멀 패턴 스니커즈는 야성미와 섹시함을 스포티한 소재로 적절히 가미했다.

징 장식이 돋보이는 수페르가의 스니커즈는 니얼브 방식으로 스터드 장식을 처리해 시크하면서도 발랄한 느낌을 준다. 이와 함께 빈티지한 느낌으로 처리된 신발 중창이 멋스러움을 강조했다.

/김학철기자 kimc1[illegible]@metroseoul.co.kr

샴푸 골라 썼더니 "샵 다녀왔니?"

헤어스타일 연출 도움 주는 기능성 제품 다양

메이크업 전 기초케어를 탄탄히 해야 하듯 원하는 헤어스타일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맞는 샴푸를 사용해야 한다. 헤어 스타일리스트 김정한 실장은 "헤어 스타일링의 기본은 올바른 헤어 관리에서 시작한다"며 "개인의 두피와 모발에 맞는 제품으로 깨끗하게 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모발에 광채를 주고 싶다면 '윤기샴푸'를 사용하면 된다. 샴푸의 전 성분 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디메치콘은 실리콘 성분을 의미하는데 이 실리콘은 모발의 윤기와 매끄러움을 더해준다. 하지만 최근 실리콘 샴푸가 두피 트러블을 일으킨다고 알려지면서 식물성 오일 컨디셔닝 성분을 담은 무실리콘 샴푸가 인기를 끌고 있다.

건성 피부도 수분 공급이 가장 중요하듯 건조하고 푸석한 모발에는 '수분 샴푸'가 제격이다. 수분 샴푸로 건조함을 해결한 뒤 컨디셔너나 트리트먼트로 모발에 충분한 영양을 주면 촉촉한 머릿결을 유지할 수 있다.

힘이 없거나 축 처진 모발을 가진 사람을 위한 '볼륨 샴푸'는 정수리 부분의 볼륨을 살려줄 뿐 아니라 모발 한 올 한 올을 살려 전체적으로 풍성하게 보이는 효과를 준다. 특히 웨이브 헤어의 컬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 풍성한 헤어 스타일을 연출해준다.

'퍼퓸 샴푸'를 사용하면 마치 향수를 뿌린 것처럼 은은하면서도 자신만의 시그니처 향기를 표현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자기 취향에 따라 향기 샴푸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샴푸 향도 보편적인 프루티 플로럴 계열에서 깊고 우아한 우디 계열까지 점점 다채로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장혜진 기자 [illegible]

씨엘 첫 화장품 CF "눈꼬리 메이크업 뜰걸!" 걸그룹 투애니원(2NE1)의 씨엘이 생애 첫 화장품 광고를 찍었다. 5일 케이플린 뉴욕은 씨엘과 함께한 '아이 메이크업 화보'를 공개했다. 씨엘은 또렷한 블랙 아이라인에 눈꼬리를 길고 날렵하게 마무리하고 눈가에 자신의 이름인 'CL'을 타투로 새겨 넣어 눈길을 끌었다. /케이플린 뉴욕 제공

이대 제2병원 연구 인재 대거 영입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서울시 강서구 마곡지구에 제2병원 건립을 앞두고 임상 및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인재 영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이달 1일자로 김윤근(사진) 포스텍 생명과학과 교수를 이화융합의학연구원장 겸 연구중심병원 추진단장에 임명하는 등 임상 교수 6명과 기초 교수 2명을 영입했다.

이화융합의학연구원은 연구중심병원 확립을 위한 제반 연구 시스템 정비는 물론 기초·임상연구 혁신플랫폼 구축을 위한 구심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이화융합의학연구원장 부임을 계기로 향후 기초 연구와 임상 연구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과 연구 개발 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및 기초·임상 증가 및 융합 연구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게 된다.

/박지원기자 [illegible]

한라산 트레킹 가고 커플 자전거 받고

아웃도어 사은행사 줄이어

본격적인 아웃도어 시즌을 맞아 관련 브랜드들이 다양한 사은 이벤트를 펼치고 있다.

레드페이스는 이달 말까지 '한라산 트레킹 원정' 이벤트를 실시한다. 전국 레드페이스 매장에서 상품을 구매한 고객과 온라인 소문내기 참가자만 응모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1등 15쌍에게 다음달 24~26일 진행되는 한라산 트레킹 원정 체험의 기회를 준다. 레드페이스는 트레킹 원정대의 제주행 고속페리 탑승권을 포함한 교통비와 숙박 등 여행 경비 일체를 지원한다. 이 밖에 여행 도서 '알생에 한 번은 남미로 떠나라', HD 고화질 포토북 사용권을 경품으로 준비했다.

블랙야크 키즈는 신학기를 맞아 31일까지 주말마다 '럭키박스 프로모션'을 펼친다. 전국 블랙야크 키즈 매장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블랙야크의 그린카드를 신규로 발급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럭키박스에는 블랙야크 키즈 양말과 학용품·완구용품 등 약 10종의 기념품 가운데 하나를 담았다.

노스케이스는 화이트라벨 커플을 위한 화이트데이 이벤트를 연다. 16일까지 노스케이스 화이트라벨 매장에서 20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응모권을 증정하고 추첨을 통해 1등 커플 한 쌍에게 프리미엄 바이크 스캇 자전거 2대를 선물로 준다.

/박지원기자 [illegible]

중저가 선물용 제품 늘리고 포인트·할인·경품 혜택 다양

편의점 '화이트데이 쇼핑족'에 러브콜

화이트데이(3월 14일)를 앞두고 편의점 업계가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 고객잡기에 나섰다.

먼저 씨유(CU)는 13~14일 이틀간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CU모바일 캔디 교환권' 또는 '캔디크러쉬사가 게임 아이템'을 무료 증정한다. 또 캔디뿐 아니라 초콜릿 상품 등 다양한 스위트 상품을 많이 찾는 남성 고객들을 위해 밀크 푸딩 등 디저트 상품도 함께 준비했다. 1만5000원 이상 구매 고객이 CU멤버십을 적립하면 1000포인트를 추가 적립해주고 오는 12일까지는 CU멤버십 10% 추가 적립도 해준다. 신한카드 결제 고객에게는 데이 행사에 스티다셀러인 '마켓오 초콜릿' 전 상품 30% 할인서비스를 제공한다.

GS25는 1만원대 중저가 상품을 지난해보다 7종 늘린 45종으로 확대하고, 가방·지갑·화장품·액세서리·시계 등 20여종 상품을 준비했다.

또 GS25는 친구들에게 간단하게 선물할 수 있도록 3월 한 달 동안 멘토스·리콜라·스카치캔디·가나초콜릿 등 57종 상품에 대해 2+1 행사를 벌인다.

편의점 업계 가운데 유일하게 3가지 크기의 애니팡2 캐릭터 인형도 판매한다. 오는 16일까지 화이트데이 세트 상품 75종에 대해 POP티머니로 결제 시 10% 할인과 함께 POP티머니 회원에게는 GS&포인트 10배(10% 적립금이 5000원 한도)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여기에 제휴통신사 멤버십(LGU+, 올레클럽) 15% 할인까지 더하면 고객들은 최대 31%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미니스톱의 경우 페레로로쉐 상품을 별도의 비용 없이 귀엽게 포장할 수 있도록 캐릭터가 그려진 DIY 포장상자 3종을 마련했다.

올해 처음으로 프리미엄 수제 초콜릿 '이루다 쇼콜라티에(IRUDA Chocolatier)'을 도입했고 미니케이크 2종도 선보인다. 10일부터 17일까지는 2000원 할인쿠폰을 선착순 5000명까지 제공한다.

세븐일레븐은 총 90여 종의 선물에 대해 1만원대 'DIY형 모음 상품' 구색을 전년보다 3배 이상 대폭 강화했다. 총 40여 가지 상품을 신한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 시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동사(올레KT) 15% 추가 할인도 받을 수 있어 최대 32% 저렴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다.

/정경일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비발디파크 스키월드 '마지막 특가' 손짓

비발디파크 스키월드가 오는 16일 폐장일까지 특별 균일가로 막바지 스키 시즌을 즐길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우선 7일부터 9일까지 스키월드를 방문하는 고객은 단일권과 복합권을 각각 2만원, 2만5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또 이 기간 동안 소인은 3000원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렌탈 가격은 복합권이 1만원, 단일권이 7000원이다.

이어 10일부터 16일까지는 주간만 운영되는데 이때 단일권은 1만원, 복합권은 1만5000원이다. 단 14일과 15일은 야간 및 새벽에도 스키를 탈 수 있다.

/윤기자

장 기능 개선 돕는 '장엔장' 1+1 행사

가공 음식·부족한 섬유질 기름진 육류 섭취·운동 부족 등으로 배변 활동이 원활하지 못하면 체내 노폐물이 제때에 빠져나가지 못하고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아 우리 몸에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에 따라 장 기능 개선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산들건강(www.isandle.co.kr)은 봄을 맞아 장엔장을 하나 구입하면 하나 더 제공하는 1+1행사를 진행한다. 가스명수·쏠기담·우황청심원 등을 만드는 삼성제약에서 출시한 장엔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품목 제조 신고한 건강기능식품이다.

우리 몸에 유익한 아놀린 자카리 추출물 등 49종의 엄선된 원료로 장 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증받았다. 문의 070-4365-5000

/정혜인기자

실내화의 모든 것 '인꼬' 쇼핑몰 오픈

실내화 전문 쇼핑몰 '인꼬'가 오픈했다.

인꼬는 신우실업에서 제작한 실내화 브랜드인 UGBY를 판매하는 쇼핑몰로 실내화, 욕실화, 아웃도어, 특수화 등 다양한 제품을 다룬다.

UGBY 실내화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인정한 무독성 안흑가공수지(EVA)로 제작해 친환경적이고 내구성이 탁월하다. 또한 가볍고 쿠션감이 좋아 발과 무릎에 무리를 주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온라인 쇼핑몰 오픈을 기념해 인꼬는 오는 10일까지 실내화를 최대 30% 할인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한편 신우실업은 욕실 슬리퍼 최초로 미끄럼 방지 기능 슬립 PAD 기능을 갖추고 해외 20여 개국에 수출하는 신발 전문기업이다.

/김학철기자 [illegible]

칠성사이다 '맑고 깨끗한' 새 모델 이현우·진세연 롯데칠성음료가 국민 음료 '칠성사이다'의 새 모델로 최근 드라마·영화계에서 주목받는 젊은 배우 이현우·진세연을 캐스팅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이 등장하는 칠성사이다의 새로운 콘셉트 광고는 이달 중 프리퀀징과 담청이란 파도라 등 2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본편으로 나눠 TV·라디오·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쇄 광고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롯데칠성음료는 대학교 커뮤니티 등에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며 청춘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롯데칠성음료 제공

미술관도 공연장도 "봄나들이 오세요"

겨울을 지나 꽃피는 봄이 왔다. 새봄을 기다리는 꽃망울처럼 서울 시내에서도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

충무아트홀에서는 세계인이 가장 좋아하는 화가인 빈센트 반 고흐를 재조명한 뮤지컬 '빈센트 반 고흐'가 공연된다. 고흐의 살아 숨 쉬는 그림이 3D 프로젝션 맵핑 기법을 통해 무대 위에 그려지며 고흐의 인생이 담긴 음악도 함께 즐길 수 있다. 또 오는 8일부터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영웅인 아버지를 주제로 한 연극 '내 마음의 슈퍼맨'이 이어진다.

서울 시내 곳곳의 공원과 서울대공원에서는 봄맞이 체험을 할 수 있다.

▲개구리와 한 살이(길동생태공원) ▲서울왕국에서 깨어난 양서류(월드컵공원 난지생태습지원) ▲자연관찰 창작교실(서울창포원) 등의 체험 활동이 진행되며 서울대공원에서는 야생화와 난, 그리고 분재 작품 등을 활용한 전시와 시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봄꽃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는 '아파트 인생전'이 열린다. 아파트를 주제로 한 전시로 아파트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 시대 아파트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시립미술관 및 덕수궁 돌담길을 산책하며 안임순·윤진미·조숙진 등 여성 예술가 3인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노바디'와 서울과 런던에서 활동 중인 손혜민·존 리어든의 작품전인 '성장교본(The Growing Manual)'이 새봄을 장식한다.

/황재용기자 [illegible]

우리동네 그 호떡집 외국서도 먹혔네

망고식스·네네치킨·스쿨푸드 등 프랜차이즈 국내스타일 그대로 해외진출 성공 '외식 한류'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외국 시장 진출이 한류의 접목과 특화된 메뉴 등의 전략을 도입하면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끈다.

지난해 중국 상하이 홍콴루에 문을 연 망고식스 상하이 1호점. 이 매장의 경우 드라마 PPL(Product Placement)의 효과로 폭발적 인기를 얻고 있다. 최근엔 한국 드라마 '상속자들'에 등장한 '망고&코코넛' 신시의 품격'에 나온 '블루레몬에이드' 등을 마시기 위해 현지 소비자들이 길게는 2시간 동안 줄을 서기도 한다.

최근 문을 연 상하이 2호점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하루 평균 방문객은 1000~2000명 정도이며, 평일 낮 시간에도 주문을 하기 위해 늘어선 행렬이 매장 밖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곳에서는 드라마에 등장했던 메뉴가 하루 900잔 이상 판매되고 있으며, 유럽풍 프리미엄 디저트류 주렌 와플, 요거트아이스크림 등이 인기를 얻고 있다.

망고식스는 지난해 엔지점을 시작으로 상하이 1호점, 쉰저우점 등 3개 매장을 선보인 데 이어 올해는 지난달 상하이 2호점(구베이점)을 열었고 5월 난징에 1개 매장을 오픈할 예정이다.

2012년 말 싱가포르에 첫발을 내디딘 네네치킨(사진)은 진출 1년여 만인 지난해 12월에 3호점까지 개장하고 점진적인 성장세를 보이면서 싱가포르 외식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매콤한 한국식 양념이 어우러진 다양한 치킨 메뉴로 싱가포르 현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을 뿐 아니라 한글이 표기된 간판과 한국식 배달 문화로 한류의 인기 속에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네네치킨 관계자는 "한류에 힘입어 한글을 사용한 브랜드 이미지(BI)를 싱가포르에서도 사용하고 있으며 '네네치킨'이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브랜드라는 점도 하나의 메리트로 작용한 것 같다"고 전했다.

필리핀·태국·말레이시아·캐나다 등에서 해외 매장을 운영 중인 불고기브라더스도 국내 운영 방식을 해외 매장에 노출한 경우다. 한글 간판과 메뉴 명칭을 국내와 동일하게 사용하고 간단한 인사말은 한국어로 할 수 있게 현지 직원들을 교육시켰다. 대나무 문양 벽지와 금강산전도 등으로 전통미를 보여줄 수 있는 인테리어로 매장을 꾸미는 등 한식의 맛과 함께 멋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인도네시아에 11번째 해외 매장을 오픈한 데 이어 중국 시장 공략에도 나설 계획이다.

분식 프랜차이즈인 스쿨푸드는 지난해 10월 홍콩 소개 전문 사이트인 '오픈라이스'에서 홍콩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맛집 1위에 올랐다. 스쿨푸드는 홍콩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비결로 '한국식 메뉴'를 꼽았다. 한국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메뉴를 홍콩에서도 맛볼 수 있게 한다는 전략하에 각 메뉴들의 모든 소스와 장어 쌈을 한국 본사에서 공수하고 레시피와 조리 과정은 한국과 동일하게 해 판매하고 있다. 현지화보다는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대로 진출한 것이 강점으로 작용해 홍콩 진출 두 달 만에 맛집 1위에 쾌거를 기록했다.

씨앗호떡은 현재 덴마크와 미국 등 4개국에 진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씨앗호떡 관계자는 "해외 매장 중 한글 간판을 사용한 매장이 소비자들로부터 더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정해일 기자 jerne@metroseoul.co.kr

패스트푸드, 웰빙푸드로 진화중

고칼로리 대표 치킨·피자 야채 곁들여 건강함 추구

최근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 웰빙 열풍이 일면서 먹거리에도 건강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비싼 가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으로 쉽게 이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패스트푸드 업계가 웰빙 트렌드에 맞춰 과거 고칼로리와 육류 위주의 제품으로 건강에 좋지 않다는 편기를 바꿔 건강 사이드 메뉴를 도입하거나 천연 식재료를 활용하는 등 패스트푸드에 대한 편견을 벗기 위해 노력 중이다.

교촌치킨의 경우 건강을 고려한 샐러드 메뉴를 도입했다. 치킨만으로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 및 섬유질을 보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시됐다. 이 샐러드에는 필산화 공갈이 함유돼 질병에 저항할 수 있는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또 새콤달콤한 드레싱(블루베리·리얼 오렌지)과 5가지 채소의 조화로 튀긴 유의 느끼함을 줄여주고 ...을 상승시켜주는 효과가 ...

리피자노스트리(사진)는 치즈를 이용한 레시피를 통해 여성들에게 '살찐다'는 피자의 관념을 깨기 위해 스키니지(씬)피자를 출시했다.

토마토도시락은 2000~6000원대의 저렴한 가격대에 맛과 영양을 동시에 갖췄다는 점이 특징. 여기에 도시락 전문점이 한계란 질린다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마요 덮밥 류 선 오피스 메뉴와 각종 제철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

/정해일 기자

주문 즉시 뜻하게! 던킨 핫밀 드세요 5일 오전 서울 강남콘 장거광장에서 열린 던킨도너츠 핫밀 3종 출시행사에서 세트 복장의 모델이 매직오븐에서 핫밀을 꺼내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번 신제품은 모닝퀵빗 메뉴를 리뉴얼한 '굿모닝 불렛브레드'와 '할라피뇨 불고기 핫도그', '허니 크랜베리 치아바타' 등 3종으로 주문 즉시 매장에서 따뜻하게 데워 제공되는 제품이다. /던킨도너츠 제공

돈가스·떡갈비·너비아니 모두 '착한 가격'

강강술래 이달말까지 파격 할인 혜택 제공

외식은하기업 강강술래는 이달 말까지 식품 파격 할인행사를 벌인다고 5일 밝혔다.

한우사골곰탕 대용량 세트(800㎖×5팩·15인분)는 3만7800원, 소용량 세트(350㎖×5팩·10인분) 2만2000원에 각각 30% 할인 판매한다. 사골을 우려낸 국물은 콜라겐과 칼슘 등 무기질과 단백질이 풍부해 면역력을 높이고 기력 보충에도 좋다. HACCP 인증시설에서 100% 한우로 우려내 맛이 진하고 구수하며 방부제·색소·조미료 등을 넣지 않았다.

100% 국내산 돼지의 등심 부위에 쌀(米)빵가루를 입혀 만든 통등심돈가스(720g·3박스)는 3만1500원, 자연산 치즈를 사용한 모짜렐라돈가스(720g·3박스)는 3만7800원에 각각 30% 할인 판매한다. 비타민 E와 아미노산이 풍부한 흑임자를 넣은 흑임자한돈너비아니(360g×3박스·2만5200원)와 100% 한우갈빗살로 만든 잘잘

한우떡갈비(360g×3박스·4만2000원)도 30% 할인가로 구매 가능하다. 국내산 돼지고기 뒷다리살로 만든 5종 수제 모둠 소시지(385g×4세트)는 21% 할인된 1만5000원, 갈비맛 쇠고기육포(50g×6봉)는 30% 할인된 2만5200원에 판매한다.

주문은 온라인 쇼핑몰(www.sul almall.com)과 전화(080-925-9292)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선릉점은 2월까지 주중에 한우스페셜·모둠구이·양념등심 메뉴를 2인분 시키면 1인분을 추가 증정한다(해피아워 갈식류 제외). 5만원 이상 결제 시 냉면쿠폰 1매, 10만원 이상은 냉면쿠폰 2매를 제공한다.

/정혜민 기자 hjung0404@

모바일커머스 "올빼미족 졸았나"

CJ오쇼핑 시간대별 매출 심야 비중 줄고 오전 급증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커머스는 그동안 심야 시간(자정~5시)의 비중이 높았지만 최근 오전 시간(7~12시)의 매출 비중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CJ오쇼핑이 2012년부터 2014년 1월까지의 모바일커머스 매출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전체 매출 중 모바일커머스 비중이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올해 1월 전체 매출 중 모바일커머스 비중은 18%로 지난해 전체 비중인 9%보다 2배가량 상승한 것이며, 전년 같은 달 비중인 6%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모바일커머스는 올해 대부분의 시간대에서 1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오전 10시와 11시에는 20% 중반대의 비중을 차지하며 동시간대 인터넷 비중을 4% 가량 앞섰다.

이 회사의 경우 2012년 11%를 차지하던 심야 매출 비중은 올해 7%까지 하락했다. 하지만 오전 시간 매출은 2012년 26%에서 2013년 27%를 거쳐 올해는 32%까지 상승됐다.

/정해일 기자

구석구석

◆삼척 정월대보름제
- 날짜 3월 7~9일
- 장소 강원 삼척시 엑스포 광장

축제는 삼척의 대표적인 민속놀이인 기줄다리기, 살대 세우기, 달집 태우기, 망월놀이 등 9종의 민속놀이 행사와 공연 시연, 먹고 지기, 강원 우리 술 선발계전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준비했다. 행사에선 1300년 전통의 오금잠제 별신굿이 재현되고 팔씨름 대회와 윷놀이, 술비놀이와 같은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진안 운장산 고로쇠축제
- 날짜 3월 15~16일
- 장소 전북 진안군 운일암 반일암 삼거광장 일원

말끔한 고로쇠 수액 한 잔으로 봄을 만끽할 수 있는 축제는 고로쇠 증산 기원제로 시작된다. 또 한국무용, 풍물 공연, 각설이 공연 등의 볼거리와 고로쇠 체험 건강 걷기대회, 고로쇠 수액 채취 체험, 고로쇠 시음회 등 고로쇠를 주제로 하는 다양한 행사가 이어진다.

◆칠북민속줄다리기
- 날짜 3월 14~15일
- 장소 경남 함안군 칠원면 사무소 앞

축제에서는 축제 기원제를 시작으로 진동무, 풍물 농악 공연, 불꽃놀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청룡과 백호로 나뉘어 진행되는 줄다리기와 경품권 추첨은 축제의 재미를 더한다.

토탈 콘텐츠 서비스
폰트
3D 일러스트
아이콘
사진
편집사진
OPENAS

해년 봄을 알리는 축제는 목야지에 불을 놓았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다양한 들불을 준비한다. 사진은 지난해 열렸던 축제에서 선보인 오름 감상 화산 분출쇼. /제주시 제공

화들짝! 제주의 봄 깨우는 불쇼

7~9일 새별오름서 들불축제

방목 풍습서 유래된 전통 대동놀이·풍물 행진 이어 마지막 날 정상서 열리는 화산 분출쇼·불놀이 장관

유네스코 3관왕과 세계 7대 자연경관 등 세계적으로 드높아진 브랜드 가치를 자랑하는 제주에서 새봄의 기운이 전해진다. 경칩을 하루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새별오름에서 '무사 안녕과 할망 인 제주'를 주제로 '2014 제주들불축제'가 화려한 막을 올리는 것이다. 제주만의 색과 멋, 맛과 정을 듬뿍 담은 감동을 느껴보자.

◆봄 준비하던 쉐테우리의 풍습

들불축제는 방목을 하던 제주의 농경 풍습에서 유래됐다. 방목을 맡았던 목동(쉐테우리)들이 해묵은 풀을 없애고 해충은 구제하기 위해 늦겨울에서 경칩에 이르는 기간 동안 목야지에 불을 놓았던 것이 축제의 기원이 된 것이다.

이에 축제는 제주가 자랑하는 새별오름에서 열린다. 새별오름은 '샛별과 같이 빛난다'라는 뜻을 가진 오름으로 남쪽 봉우리를 정점으로 작은 봉우리들이 북서 방향으로 타원을 그리며 옹글게 솟아있어 들불을 만끽하기에 안성맞춤이다. 더욱이 이 오름은 고려시대 최영 장군이 몽골의 잔존 세력인 목호(牧胡)를 토벌한 전적지로 역사적 유서가 깊은 곳이기도 하다.

◆새해 무사 안녕 기원, 희망 불씨

축제는 3일 동안 일자별로 무사 안녕의 날(7일), 도민 통합의 날(8일), 희망 기원의 날(9일)로 구성된다.

우선 첫째 날에는 축제 유치 기원제를 시작으로 축제를 여는 대동놀이, 풍물 희망 거리 대행진 등이 열린다. 특히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무사 안녕 횃불 대행진과 가리(촐) 만들기 경연 대회, 가리 태우기가 색다른 재미를 더한다.

8일에는 도민과 방문객, 외국인 관광객이 하나가 되는 대동한의 장이 마련된다. 도민 대통합 줄다리기, 할망의 봄 나눔 행사, 집줄 놓기 경연 등의 행사가 이어지고 읍·면·동 대항 넉둥베기 경연 대회, 비상 미예 공연, 제주 할망 콘서트 등의 프로그램도 준비된다.

축제 마지막 날에는 횃불 점화와 오름 경상 화산 분출쇼 및 연화 연출, 대형 희망 불씨 점화, 오름 불 놓기 등을 통해 올 한 해의 무사 안녕과 만사형통 등 새 희망을 기원하게 된다.

◆오름 트레킹 잔디 썰매, 힐링

이와 함께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준비됐다.

들불축제 종합홍보관이 운영되고 오름 트레킹 체험, 잔디 썰매 타기, 희망의 들불 횃대 만들기, 이벤트 벽화 그리기 등의 체험 행사가 방문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또 들불 캐릭터 애꼼봉 만들기, 거미네와 함께하는 포토존, 제주의 소릿길 체험 등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사하며 제주의 칭찬한 맛을 즐길 수 있는 향토음식점, 제주 전통 민속주 코너 등은 축제의 풍성함을 더한다.

게다가 장애인 및 노약자 편의를 위한 관광객 쉼터와 키즈카페가 운영되며 바가지 없는 음식점 운영을 위한 가격 표시제도 실시된다.

/황재용 기자 hsoul38@metroseoul.co.kr

- 날짜 3월 7~9일(금~일요일)
- 장소 제주도 제주시 새별오름
- 문의 제주도 제주시 관광진흥과 064)728-2751

김치 명인 매운 손맛·대장간 달인 60년 뜨거운 맛…

'장인을 찾아' 떠나는 여행

한국관광공사가 '장인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3월 새봄을 만끽할 수 있는 여행지를 소개했다.

경기 부천시에 위치한 부천문화원한옥체험마을 김치테마파크에서는 국내 '김치 명인 1호'인 김순자 명인의 비법을 배울 수 있다. 유치원생부터 전문가 과정까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어 누구나 손쉽게 김치를 만들 수 있으며 맛깔손 전통음식체험관에서도 우리 먹거리 만드는 법을 체험할 수 있다.

철의 생산지로 유명한 충주시에서는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쇠를 녹여 철제 기구들을 제작해온 심화대장간을 만날 수 있다. 충주시 무학시장 입구 누리장터에 위치한 대장간은 올해 75세인 도 지정 무형문화재 야장 김명일 선생이 직접 운영하는 곳이며 철로 제작된 단호사 철조여래좌상(보물 512호·사진)은 독특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전남 나주시에서는 중요무형문화재 115호 염색장 정관채(56) 선생과 함께 쪽 염색을 체험할 수 있다. 무염천을 짜고 쪽물을 들이는 체험으로 한국전쟁 이후 끊어진 쪽 염색의 맥을 나주와 정관채 선생이 이어온 것이다. 또 나주읍성을 둘러보고 100년 전통의 곰탕을 맛볼 수 있으며 영산포 황포돛배를 타고 영산포 홍어거리에서 홍어의 참맛도 느낄 수 있다. /황재용 기자

“키스신 찍을때 각도까지 계산… 하하”

별그대 끝낸 김수현

도민준으로 안방의 여심을 훔친 배우 김수현이 세상 밖으로 나왔다. 작은 얼굴로 내로라하는 여배우들에게 굴욕을 준 그의 가장 큰 매력은 소두나 큰 키도 아닌 깊은 눈매. 눈으로 연기하고 싶다는 그는 인터뷰를 의식해 하며 '도랄때'다운 너털웃음을 짓기도 했지만 작품과 연기에만큼은 진중했다.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에서 온 그대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별그대, 김수현 그리고 도민준

김수현은 외계인 도민준을 연기했지만 인간과 똑같은 감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400년이라는 세월을 표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인간에 대한 호기심이 세월이 흐르면서 상처로 바뀌고 그 과정에서 민준은 감정을 누르고 살아요. 외계인이라서 다르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그는 도민준을 두고 '데뷔 후 자신이 맡아 온 캐릭터들의 총 집합체'라고 설명했다. 이 모든 것을 아우르기 위해 혼자 고민하고 PD, 작가와 많은 대화를 나눈 끝에 400년 세월 속에 상처 입은 도민준을 표현할 수 있었다.

영화 '도둑들' 이후 두 번째로 만난 전지현(천송이)과는 더욱 완벽한 호흡을 맺었다.

"지현 누나는 성격이 쾌활해서 연기할 때 즐겁고 편했어요. 연기하는 동안 '나는 최고의 천송이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유독 많은 키스신을 소화해야 했던 김수현은 촬영할 때 고민을 많이 했다. 도민준은 지구인과 침이 섞이면 기절하기 때문이다.

"키스를 하면 아파요. 그래서 능숙해야 하나, 어설퍼야 하나 정말 고민 했죠. 하지만 저는 시청자들이 제 키스신을 보고 소리를 질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일부러 더 각도를 만들기도 했죠.(웃음)"

해피엔딩으로 종영했지만 김수현이 생각한 결말은 달랐다.

"배우는 물론 PD도 마지막 회 내용을 몰랐습니다. 마지막 대본을 받기 전 저는 도민준이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하는 시한부 사랑으로 종영하길 바랐어요. 시청자들이 눈물 콧물 다 쏟는 그런 엔딩이요. 하지만 행복하게 마무리된 것도 정말 좋았어요."

◆ 27세 배우, 그리고 인간 김수현

김수현은 자신의 성격은 집요하다고 말했다. 그런 성격은 배우라는 직업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집요할 정도로 한곳에 집중하는 편이에요. 그렇다보니 간혹 연기를 할 때 전체를 봐야 시야가 넓어지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숲이 아니라 나무, 특히 '나무들'을 보려고 합니다. 연기를 할 때 매 컷, 매회, 작품 전체, 이렇게요."

도민준 지금껏 연기한 캐릭터 집합체
결말 시한부 사랑으로 종영하길 바라
난 고집쟁이 · 흥행 3연타 운 좋았죠

그의 집요함이 대중과 통한 것일까? 2012년 MBC '해를 품은 달'의 조선시대 가상왕 왕 이훤부터 지난해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의 간첩 원류환, 그리고 올해 '별그대'의 도민준까지 3연타 대박을 터트리며 흥행력 있는 20대 배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는 "작품을 선택할 때 캐릭터가 가진 매력이 극에 어떻게 녹아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핀다. 그동안 작품 운이 좋았다"며 흥행 이유를 겸손하게 설명했다.

흥행 불패를 이어오지만 고민도 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니까 감사하지만 두려운 부분도 있어요. 선택하는 역할이 로맨틱 코미디에 편중됐다는 지적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언제나 공격적으로 도전하겠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죠. '나는 언제 이런 걸 연기해보지?'라는 고민보단 지금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려고요. 계속 해나가다 보면 다양한 인물을 만날 거라 믿습니다."

/전효진기자 jeonhj@metroseoul.co.kr

사진/키이스트 제공 디자인/박은지

K팝스타3' 권진아 보고싶다 방송영상 조회수 100만건↑

SBS 서바이벌 오디션 'K팝스타 시즌3'의 우승 후보로 급부상한 권진아의 방송 영상 조회 수가 100만 건을 넘어섰다.

2일 방송된 'TOP 8 결정전'의 권진아 무대는 4일까지 동영상 전문 사이트 네이버 TV캐스트에서 조회 수 100만 건을 넘겼다.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 다른 사이트의 동영상 재생 횟수까지 합하면 200만 뷰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권진아의 이름은 방송 직후부터 이튿날 각종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최상위권에 올랐고, 그가 부른 원곡인 프라이머리의 '씨스루'는 음원차트 톱 10에 등장하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벌어졌다.

권진아는 시즌2 지역예선에서 이미 탈락한 바 있어 이번 시즌에서 보여주는 동종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번 시즌 본선 2라운드에서 박진영의 '난 여자가 있는데'를 자신만의 색으로 편곡해 호소력 짙게 불러 가능성을 입증했다.

이후 라운드에서 깊은 인상을 남기지 못해 톱 10 하위권으로 주목받지 못했지만 톱10과 톱 8을 뽑는 배틀 오디션과 톱 8 결정전에서 모두 1위로 진출하며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올랐다. 한편 한희준-배민이 짐한나-남영주-썸띵(짐세은-김아현) 등 B조가 벌일 톱 8 결정전은 9일 방송된다. /유순호기자 sunoh@

상남자 김현중 vs 상남자 박유천

두 아이돌 배우 수목극으로 연기 맞대결

SBS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가 종영한 가운데 수목극 경쟁이 다시 시작됐다. 새로운 경쟁의 중심에는 아이돌 출신 배우인 김현중(사진 왼쪽)과 박유천(오른쪽)이 있다.

두 사람은 각각 KBS2 '감격시대: 투신의 탄생'(이하 '감격시대')과 SBS '쓰리데이즈'에 출연하며 남성 시청자들을 브라운관 앞으로 끌어올 전망이다.

'감격시대'는 꽃미남 김현중이 아닌 상남자로 변신한 그를 볼 수 있는 작품이다. 이 드라마는 '별그대'에 밀려 늘 2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극중 파이터지만 어둠 생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는 신정태 역을 맡은 김현중의 액션 연기는 매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전체 24부작 중 절반 이상을 달려온 '감격시대'는 10회 이후부터 작가가 교체돼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김현중은 지난 4일 "작가가 바뀌면서 연기 톤이 달라진 것도 배우가 캐릭터를 지키면 되는 일이다"며 작가 교체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5일 첫 방송된 '쓰리데이즈'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던 '별그대'의 후속작이라는 프리미엄과 함께 주목받고 있다. 작품의 중심에 있는 박유천은 대통령 경호원 한태경 역을 맡아 불의를 보면 주체하지 못하는 정의로운 캐릭터를 연기한다.

박유천 외에 손현주·박하선 등이 출연하는 '쓰리데이즈'는 '뿌리깊은 나무'의 신경수 PD와 '유령'의 김은희 작가가 1년 이상 기획한 작품으로 장르적 특징이 강한 드라마다. 극의 구성이 탄탄해 서 출연하게 됐다는 그는 지난 26일 제작발표회에서 "수준 높은 액션으로 멋진 드라마가 되길 바란다"고 각오를 밝히며 액션 연기에 대한 자신감도 드러냈다. /정해진기자 jeonhj@

metroseoul.co.kr

가수 이현도 제작자 변신

힙합 전설 듀스 출신의 이현도가 연예기획사를 설립하고 제작자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원포원엔터테인먼트라는 이름의 회사를 설립한 이현도는 5일 "그동안 음악적 교류를 통해 관계를 쌓이온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들과 함께 연예기획사를 설립해 음반 프로듀서는 물론 제작자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데뷔 후 20여 년간 많은 가수들과 작업해온 이현도는 지난해 엠넷 '쇼미더머니 2'에서 D.O크루를 이끄는 멘토로 활약하며 변함없는 존재감을 드러냈다. 올 초 선보인 MBC 드라마 '기황후' OST의 엔딩 '꽃잎'은 청춘 OST로 힙합은 물론 장르를 넘나드는 폭넓은 음악 스펙트럼을 보여줬다.

이현도는 D.O크루로 인연을 맺은 래퍼 딘딘의 앨범 제작을 진행 중이며 다음달 1호 가수로 선보일 예정이다. /유순호기자

안방극장 연상연하 열풍 계속

'로필3' 후속작 '마녀의 연애'도 14세차 커플 등장

안방극장에 한동안 연상 연하 열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연상녀·연하남의 연애 이야기를 다루며 로필 신드롬을 이어나간 tvN 월화극 '로맨스가 필요해 시즌3'(이하 '로필3')가 지난 4일 종영한 가운데 다음달 방송 예정인 후속작 '마녀의 연애'에도 열네살 차이의 연상연하 커플이 등장할 예정이다.

'로필3'은 수년간의 사회생활로 사람을 믿지 못하고 성공만 바라보며 사는 연상녀 신주연(김소연)과 본인의 감정에 충실한 연하남 주완(성준)의 연애 스토리를 그리며 여성 시청층을 사로잡았다.

엄정화(사진)가 5년간의 공백을 깨고 브라운관 컴백작으로 선택한 '마녀의 연애'는 결혼을 앞두고 사라져버린 남자친구 때문에 마음을 닫은 반지연(엄정화)과 그에게 느닷없이 찾아온 연하남 윤동하(박서준)의 좌충우돌 로맨스를 담고 있다.

두 드라마 모두 연상 연이 커플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지만 '로필3'의 주완이 순수하면서도 당돌한 '돌직구 연하남'인 반면 '마녀의 연애' 윤동하는 여자친구들 사고로 잃은 아픔이 있는 '사연 있는 연하남'이다.

하지만 '로필3'의 신주연과 '마녀의 연애' 반지연 둘 다 과거 연인에게 상처를 입고 사랑보단 일을 택한 요즘 시대 여성들을 대변하는 캐릭터다. 또 과거의 남자는 모두 선배 혹은 오빠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삶과 사랑에 지친 연상녀들과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연하남의 조합은 여성 시청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드라마에서 하나의 공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민기자

'신의 선물' 유사 논란

웹툰 '다시 봄'과 타임워프 비슷하지만 내용 달라

SBS 월화극 '신의 선물-14일'(사진)과 웹툰 '다시 봄'의 설정이 비슷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신의 선물'은 납치됐다 살해 당한 딸을 살리기 위해 엄마 김수현(이보영)이 2주 전으로 타임워프해 범인을 추적하는 감성 스릴러 드라마다.

지난 2012년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연재된 웹툰 '다시 봄' 역시 교통사고로 사망한 딸의 슬픔에 자살을 택한 어머니가 타임워프를 통해 과거로 돌아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네티즌들은 두 작품 모두 딸을 잃은 어머니들이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택한 후 과거로 돌아간다는 점에 유사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신의 선물'은 딸을 살리기 위해 과거로 떠나는 반면 '다시 봄'은 어머니가 시간 여행을 반복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는 점이 다르다.

두 작품이 '타임워프'로 비교되자 네티즌들은 "타임워프 설정, SBS는 이것도 클리셰라고 할 건가?" "신의 선물, 웹툰이나 만화 원작 베낀 드라마는 아니길 바란다" "요즘 드라마들 툭하면 표절 논란이 생기는데 참 이상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지민 기자 ...kim@

부산시민위한 할인혜택
30% 할인쿠폰

대선주조
경고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부산이 꿈꾸어간다
원적외선숙성공법으로
더 순하고 깔끔한
시원블루
NEW 18도
100% 천연암반수
100%부산소주
향토기업 비엔그룹 · 지역대학들과 산학협력을 통해 미래 인재 육성에 앞장
2013학년도
시원 장학금 전달식

'노예 12년' 아카데미 특수

박스오피스 4위 '껑충'

스티브 매퀸 감독의 영화 '노예 12년'(사진)의 아카데미 특수가 시작됐다.

5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노예 12년'은 전날 하루 동안 전국 307개 상영관에서 922번 상영돼 2만397명(누적 관객 수 15만5773명)을 불러모으면서 박스오피스 4위에 올랐다. 3일 기록한 6위에서 2계단이나 상승했다.

이 영화는 3일 열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인 작품상을 수상한 후 높은 관심을 받았다. 배급사 판씨네마는 "작품상 수상 후 상영관 확대 요청이 빗발치고 있다. 본격적으로 아카데미 특수가 시작됐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카데미 특수는 미국에서 이미 시작됐다. 현지에서 DVD가 발매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상식 직전에 전주 대비 86% 상승한 극장 수익을 기록했다. 또 DVD 출시 작품으로는 이례적으로 작품상 수상 이후 상영관을 2배 이상으로 확대해 상영할 계획이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흑인 감독 최초로 작품상을 받은 것을 비롯해 여우조연상과 각색상까지 수상해 3관왕에 오른 이 영화는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노예주'와 그렇지 않은 '자유주'로 나뉘어 있던 1841년 미국을 배경으로 음악가로 살다가 사기와 납치로 인해 노예가 된 한 남자의 이야기를 그렸다.

한편 박스오피스 1~3위는 '논스톱' '폼페이: 최후의 날' '수상한 그녀'가 순서대로 차지했다. '노예 12년'이 박스오피스 4위에 진입하면서 '찌라시: 위험한 소문'과 '겨울왕국'은 각각 한 단계 내려와 5위와 6위를 기록했다. /박은희기자

"이번엔 중급자 배낭여행"

'꽃할배' 스페인편 나영석 PD "어르신들에게 추억 선물"

예능 버라이어티의 새 지평을 연 tvN '꽃보다 할배'(이하 꽃할배)가 이번엔 스페인으로 떠난다.

나영석(사진) PD는 5일 '꽃할배' 스페인 편 기자간담회에서 "이전까지는 처음 배낭여행을 경험하는 초급자 코스였다면 스페인 편은 중급자들의 배낭여행 콘셉트로 진행됐다"며 "이번엔 할배 4인방이 직접 여행 일정을 짜서 더욱 재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에는 해외 경험이 많은 짐꾼 이서진의 도움이 있었지만 이번엔 할배들만의 진짜 배낭여행에 가까워졌다"며 "일정이 전보다 더 힘들어지면서 할배들의 솔직하고도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페인을 세 번째 여행지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나 PD는 "유럽이지만 다른 나라보다 좀 더 이국적인 풍경이 펼쳐지고, 비교적 온화한 기후로 할배들이 여행하기 알맞은 장소라 선택했다"며 "또 짐꾼 이서진의 영어 실력이 잘 통하지 않는 곳이라 거기에서도 재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이서진은 앞서 다양한 해외 경험과 탁월한 영어 실력으로 준비 없이 여행에 임했다면 이번엔 철저한 준비를 했다"며 "할아버지들을 위해 제작진과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도 보여준다"고 말해 새로운 짐꾼의 모습을 예고했다.

한편 지난해 첫 방송 후 평균 연령 76세인 어르들과의 여행에서 융통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해 나 PD는 "어딜 편하게 가서 먹고 쉬고 할 수도 있지만 내 생각에 여행이란 일상의 반대"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어르신들이 현장에서 힘들어해도 촬영이 끝난 후엔 '그때 힘들었지만 즐거웠다'며 웃으신다. 그게 가장 큰 추억으로 남는 것이다. 시청자들이 보기엔 너무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작진들은 할배들에게 순간의 볼거리보단 오래 남는 추억을 선물해드리고 싶다"며 여행 버라이어티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300: 제국의 부활' 서울서도 상영

입장권 수익배분 극적 합의

영화 '300'의 속편인 '300: 제국의 부활'(사진)을 서울에서도 관람할 수 있게 됐다.

극장 입장권 수익을 분배하는 부율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미국 직배사 워너브라더스 코리아와 멀티플렉스 CGV, 롯데시네마는 '300: 제국의 부활'의 개봉을 이틀 앞둔 4일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부율 갈등 문제로 이 영화의 상영이 여의치 않았던 서울 소재 해당 멀티플렉스에서도 관람이 가능해졌다.

갈등은 지난해 CGV, 롯데시네마가 외화 직배사에 극장과 배급사의 부율을 기존 40대60에서 새롭게 50대50으로 조정한다고 알리면서 시작됐다. 지속된 갈등으로 인해 지난해 '로보캅2', '몬스터 주식회사' 등의 서울 상영이 불발됐고, 최근에는 '레고무비' 등이 메가박스에서만 상영된 바 있다. /박은희기자

소녀시대 컴백무대 오늘 열린다

새 앨범 '미스터미스터'를 발표한 소녀시대(사진)가 마침내 음악방송에서 컴백 무대를 연다.

소녀시대는 6일 엠넷 '엠카운트다운'을 시작으로, 7일 KBS2 '뮤직뱅크', 8일 MBC '쇼! 음악중심', 9일 SBS '인기가요' 등 각종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해 신곡 무대를 선사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타이틀곡 '미스터미스터'의 퍼포먼스를 최초 공개하는 것은 물론 '엠카운트다운'과 '쇼! 음악중심'에서는 '웨이트 어 미닛'을, '뮤직뱅크'와 '인기가요'에서는 '백허그'를 선사하는 등 수록곡 무대도 함께 선보인다.

'웨이트 어 미닛'은 빈티지한 사운드와 레트로 스타일의 리듬, 경쾌한 멜로디가 멤버들의 리드미컬한 보컬과 잘 어우러져 빛을 발하는 곡이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는 순간 느끼게 되는 설렘과 애타는 감정을 잘 묘사하고 있다.

'백허그'는 소녀시대의 사랑스러우면서도 통통 튀는 보컬과 감성적이면서 귀여운 가사가 잘 어우러진 미디엄 템포 곡이다. /유순호기자 suno@

늦깎이 대학생 정성화

뮤지컬 스타 정성화(사진 오른쪽)가 한세대 공연예술학과 14학번 새내기가 됐다.

2014학년도 수시모집에서 '공연예술 특기자 최우수 4년 전액 장학생'으로 선발된 그는 4일 한세대 대강당에서 열린 입학식에 참석했다.

정장을 차려입은 정성화는 무대에 올라 상장 수여를 마치고 "한세대학교 2014학번 정성화입니다. 어린분과 함께 신입생이 돼 기쁩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학업에 임하겠습니다"라고 소감을 말해 신입생 및 재학생들로부터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정성화는 1994년 SBS 3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후 뮤지컬 배우로 전향했다. '맨오브 라만차', '레미제라블', '영웅' 등의 주역을 맡았으며 지난해 한국뮤지컬대상 남우주연상, 뮤지컬 티켓 파워상, 뮤지컬어워드 남우주연상 등을 수상하며 최고의 스타로 급부상했다. /박은희기자

가슴 뛰는 뮤지컬 '보니앤클라이드'

흥행·작품성 검증받아…내달 15일부터 재공연

뮤지컬 '보니앤클라이드'(사진)가 초연과 달라진 모습으로 관객과 만난다.

지난해 국내 초연됐던 이 뮤지컬은 다음달 15일부터 BBC 아트센터 BBC홀에서 업그레이드된 작품으로 재공연된다.

이 작품은 1930년대 미국 대공황 시기 실존했던 보니와 클라이드의 실제 이야기를 배경으로 했다. 무려 ○○ 보니와 사라진 채 ○○하던 그들의 사랑 이야기와 범죄 행각은 1967년 영화로 만들어졌으며 한국에서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소개돼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후 뮤지컬로도 만들어져 2009년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2010년 플로리다 사라소다, 2011년 브로드웨이, 2012년 일본 도쿄와 오사카 공연을 거쳐 지난해 9월 한국에서의 초연으로 작품성과 흥행성을 검증받았다.

거친 인생 속에서 자유를 갈구했던 클라이드 역에는 뮤지컬 흥행 보증수표 엄기준과 아이돌 스타인 샤이니 키, 제국의아이들 박형식이 초연에 이어 이번에도 출연을 결정했다. 가수 예능이 새롭게 가세했다.

죽음도 두렵지 않은 사랑을 선택한 매력적인 여자 보니 역은 가수 가희가 맡아 뮤지컬에 데뷔한다. 뮤지컬 배우 오소연이 더블 캐스팅됐다.

이밖에 클라이드의 든든한 형 벅 역으로 뮤지컬 배우 서영주와 김법래가 출연한다.

11일 1차 티켓 오픈이 시작된다. 문의 02)764-7857

/박은희기자 kiss0427@

중국 올 경제성장 7.5% 가능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열리고 있는 중국 베이징 천안문 광장 인민대회당 밖에서 5일 붉은색 코트를 입은 여성 안내원들이 사진 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2기 2차 회의가 5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등 최고지도부와 지방·직능별 대표 2932명이 참석한 전인대 개막식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개막식과 마찬가지로 최근 쿤밍 철도역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묵념으로 시작됐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 목표치를 지난해와 같은 7.5%로 밝혔다.

리 총리는 "견고한 경제 건설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성장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며 "심사숙고 끝에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 예상 목표치를 7.5% 언팎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성과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이같은 목표를 설정했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는 3년 연속 동일한 경제성장 목표치를 제시했다. 이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바오바'(保八·8%대 성장)를 유지를 포기하고 안정과 심장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3.5% 선에서 억제하기로 했다.

올해 국방예산은 8082억3000만 위안으로 전년보다 12.2% 늘린다. 국방예산 증가는 국방 개혁과 군 현대화를 통해 '강한 중국'을 만들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리 총리는 스모그 등 환경문제와 관련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이라면서 "소형 석탄 보일러를 퇴출하고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량과 낡은 자량 600만 대를 폐차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인대는 13일 오전 폐막하기까지 정부 업무보고를 비롯해 전인대 상무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등의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안을 심의, 각종 법안을 마련한다.

2차대전 투하 대형폭탄 발견

metro hongkong

홍콩 도심에서 제2차세계대전 당시 사용되던 초대형 폭탄이 나왔다.

4일 메트로 홍콩에 따르면 해피밸리 경마장에서 900kg 규모의 공중투하폭탄이 발견됐다.

경찰은 "오래된 건축물이 재개발되면서 전쟁 당시 폭탄이 종종 발견된다"고 밝혔다.

폭발물처리과의 위인판용(袁顯榮) 주임은 "폭탄의 위력이 강력한 데다가 주변에 많은 건물들이 있어서 제거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수의절단기를 이용해 탄피를 제거하고 폭약을 연소시켜 마침내 제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홍콩은 2차대전의 주요 전쟁터 중 하나였다. 경찰은 계속해서 소구경탄, 수류탄, 폭격포, 고폭탄, 수뢰, 공중투하폭탄 등을 찾아내고 있다. 이런 폭탄들은 실탄 훈련 때 불발탄이거나 전쟁 기간에 남은 폭탄이다.

위인 주임은 "대부분이 전쟁 당시의 공중투하폭탄이다. 이 폭탄들은 땅속에 묻혀 아직까지 폭발하지 않고 있다. 도시 재개발로 이런 폭탄들이 계속 발견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공중투하폭탄 중 30%가 아직 폭발하지 않았거나 효력을 잃었으며, 주룽반도, 홍콩섬 북구, 완차이 등 지역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군은 1930년대 홍콩 수역에 수뢰 200여 개를 설치했는데 지금까지 발견된 것은 겨우 3개다. 하지만 위인 주임은 "수뢰가 수중에서 부패되고 모래자갈로 뒤덮여있어 위험하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정리=조선미기자

우크라이나 사태 한숨 돌리나

푸틴 "당장 軍투입 안해"

"당장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견할 필요성은 없지만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는다."

크림반도를 장악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크림반도의 위기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푸틴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무력 충돌 위기로 치닫던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다.

푸틴은 친러시아 성향인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실각, 우크라이나 정정이 불안해지면서 수세에 몰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신속하게 군사력을 동원해 맞불을 놓으면서 상황은 뒤집어졌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새 정부는 물론 서방 국가와의 협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푸틴 대통령이 군대 파견 가능성을 남겨뒀지만 실제로 그가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를 정치·경제적으로 압박해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는 3일 긴급 EU 외무장관 회의에서 러시아와 비자 면제 협상을 중단하는 등의 제재 방안에 합의, 6일 긴급 소집된 EU 정상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린다.

비트코인 거래소 잇단 폐업

온라인 가상 화폐 '비트코인'의 해킹으로 거래소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

세계 최대 거래소인 마운트곡스가 회생절차를 신청한 데 이어 캐나다 소재 비트코인 은행도 예치금 도난으로 4일(현지시간) 문을 닫았다.

캐나다 앨버타의 플렉스코인은 "지난 2월 공격을 받아 온라인에 저장된 모든 비트코인을 도난당했다"고 밝혔다.

마운트곡스가 비트코인 도난으로 경영 파탄 상태에 빠졌다며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약 일주일 만이다.

/조선미기자

2014년 3월 한우 1등급 「소비자 참고가격」

[소비자가 한우고기를 구입할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산정한 자료입니다.]
매장유형별로 지역별 참고가격을 산정한 것이므로 점포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육점 소비자 참고가격

단위: 원/100g

구분	등심	안심	채끝	양지
서울강북	6,020	6,120	6,292	[illegible]
서울강남	5,734	6,518	6,274	3,547
인천	4,902	5,028	4,887	3,820
광주	5,294	5,225	5,192	3,407
부산	5,070	5,201	5,158	3,542
대구	4,697	4,727	4,687	3,317
울산	5,154	5,287	5,243	3,595
경기	4,628	4,817	4,777	3,277
강원	5,203	5,496	5,302	3,679
충북	5,018	5,144	5,10	3,521
충남	4,719	4,815	4,800	3,245
전북	5,124	5,238	5,132	3,584
전남	4,553	4,784	4,743	3,259
경북	4,877	4,897	4,855	3,421
경남	4,462	4,586	4,459	3,129
제주	5,579	5,643	5,590	3,881

√농협판매장 소비자 참고가격

단위: 원/100g

구분	등심	안심	채끝	양지
서울강북	4,823	5,459	5,183	3,381
서울강남	4,823	5,459	5,183	3,381
인천	4,823	5,459	5,183	3,381
광주	4,719	5,348	5,072	3,320
부산	4,844	5,513	5,778	3,432
대구	4,834	5,513	5,226	3,432
울산	4,856	5,569	5,226	3,432
경기	4,823	5,459	5,148	3,381
강원	4,811	5,459	5,148	3,376
충북	4,811	5,420	5,148	3,376
충남	4,811	5,420	5,148	3,376
전북	4,781	5,348	5,072	3,330
전남	4,781	5,348	5,072	3,330
경북	4,856	5,569	5,226	3,432
경남	4,856	5,569	5,226	3,432
제주	4,913	5,589	5,287	3,479

√대형할인마트 소비자 참고가격

단위: 원/100g

구분	등심	안심	채끝	양지
서울강북	6,351	6,738	6,808	4,052
서울강남	6,095	6,535	6,363	4,232
인천	6,050	6,538	6,550	4,092
광주	5,620	5,736	6,200	3,881
부산	6,579	6,541	6,844	4,118
대구	6,579	6,541	6,384	4,118
울산	6,579	6,541	6,385	4,118
경기	6,525	6,838	6,363	4,057
강원	6,000	6,823	6,254	4,038
충북	6,010	6,823	6,254	4,046
충남	6,000	6,823	6,254	4,046
전북	6,803	6,738	6,204	3,881
전남	6,550	5,736	6,218	3,881
경북	6,218	6,861	6,358	4,113
경남	6,579	6,861	6,358	4,119
제주	6,107	7,124	6,486	4,181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사단법인 한국축산경제연구원

본 한우 소비자 참고가격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의 재원지원을 받아 발표하고 있음